

발간등록번호

79-6500453-000016-01

GOVP1201405890

915.1985-14-3

제주돌문화공원,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다.

돌하르방<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료 2-21호>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제1,2단계 배치도

Diagram of Jeju Stone Park in the first and second phase

제주돌문화공원은 1999년 민·관협약에 의해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6년 6월 돌박물관과 야외전시장 등을 조성하여 역사적인 개원을 이루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돌문화공원은 조성과정 당시부터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은 바 있으며,
개원 이후 지금까지 관광객과 도민 등 많은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은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돌문화공원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의 뜻과 글을 모아 소중하게 간직함과 동시에,
이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본 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뜻과 글을 이 책자로 옮길 수 있도록
방명록에 흔적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오며,
이번 책자 발간이 계기가 되어 더욱 더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돌문화공원을 애정 어린 관심과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9. 9.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병철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원칙 위에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한껏 살려
조성하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성하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은

2006년 문화관광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문화·생태·관광자원 평가에서

제주의 신화와 역사,
도민의 삶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주제를
뛰어나게 표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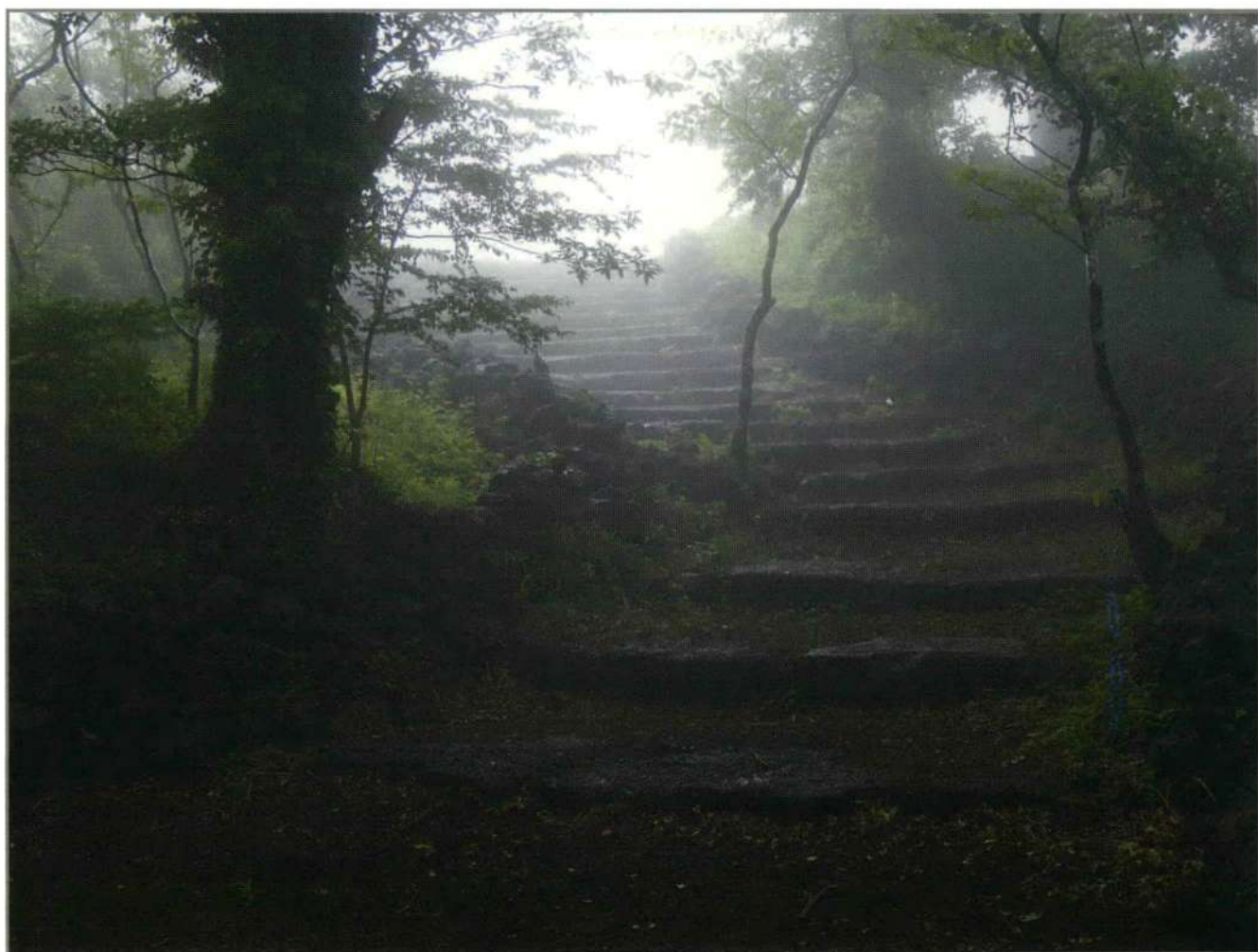
민·관 사업의 취지도 잘 살려 나가고 있는
성공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A등급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수백 년 동안 바위를 밀치며 땅 속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빨아올리다가 지쳐 쓰러진 조록 나무의 고사목 뿌리로서, 죽어서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단한 수지부분만 남아 있었던 그 잔해가 이처럼 놀라운 추상미를 형성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러분이
제주돌문화공원에 남긴
감동의 기록



돌문화공원은
우리시대의 희망입니다.
원만성취를 기도합니다.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탁발순례단 一同

2004. 5. 15. 도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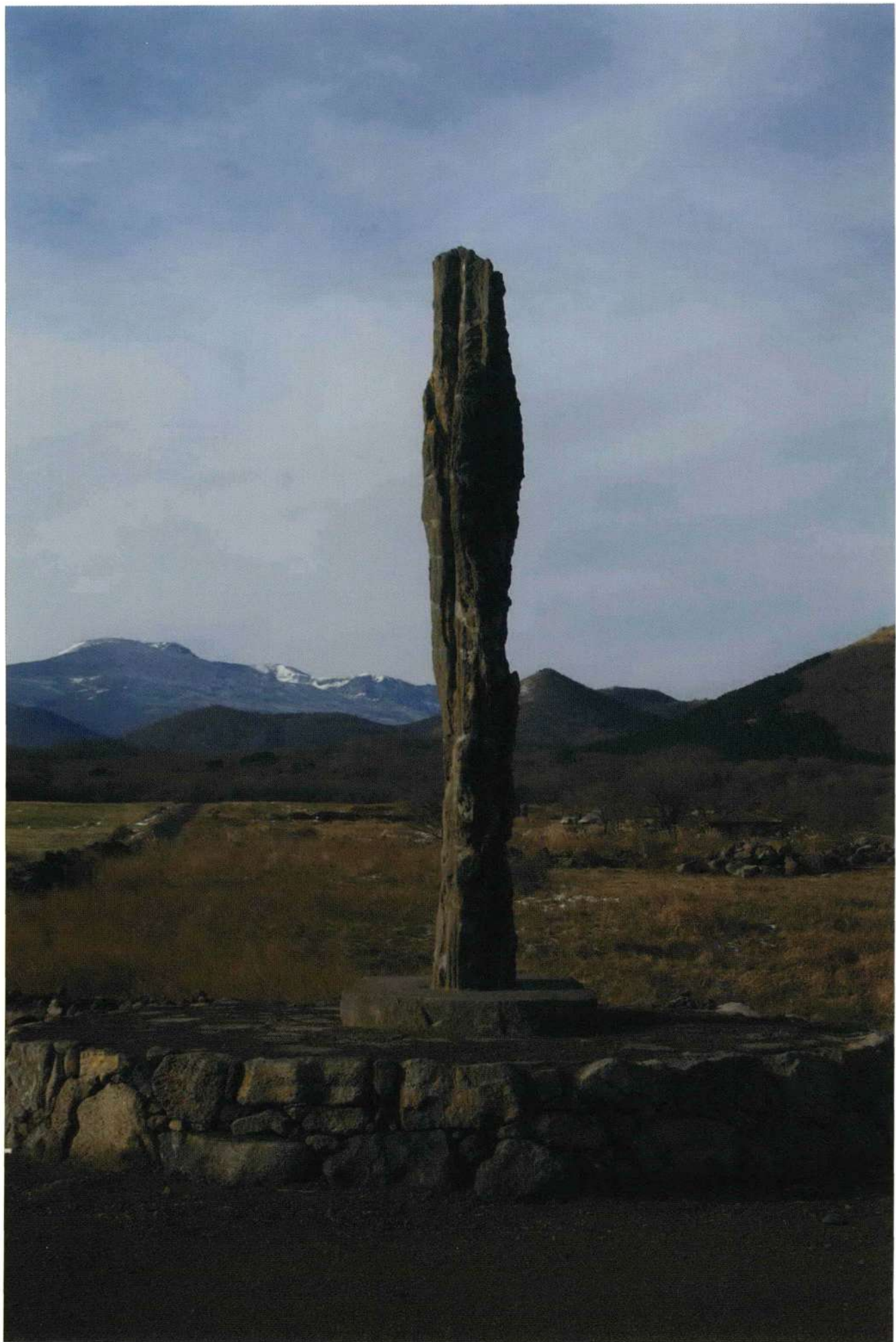
전설의 통로

원대한 비전
새로운 문화 창조의 숨결.

2002. 10. 28. 제주교육사회연구원장 이순형

제주의 시원(始原)을 찾아가는
돌문화공원의 의지에 감동하며.

2004. 5. 8. 영화감독 정지영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세계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 8. 6. 부산대학교 음대 교수 김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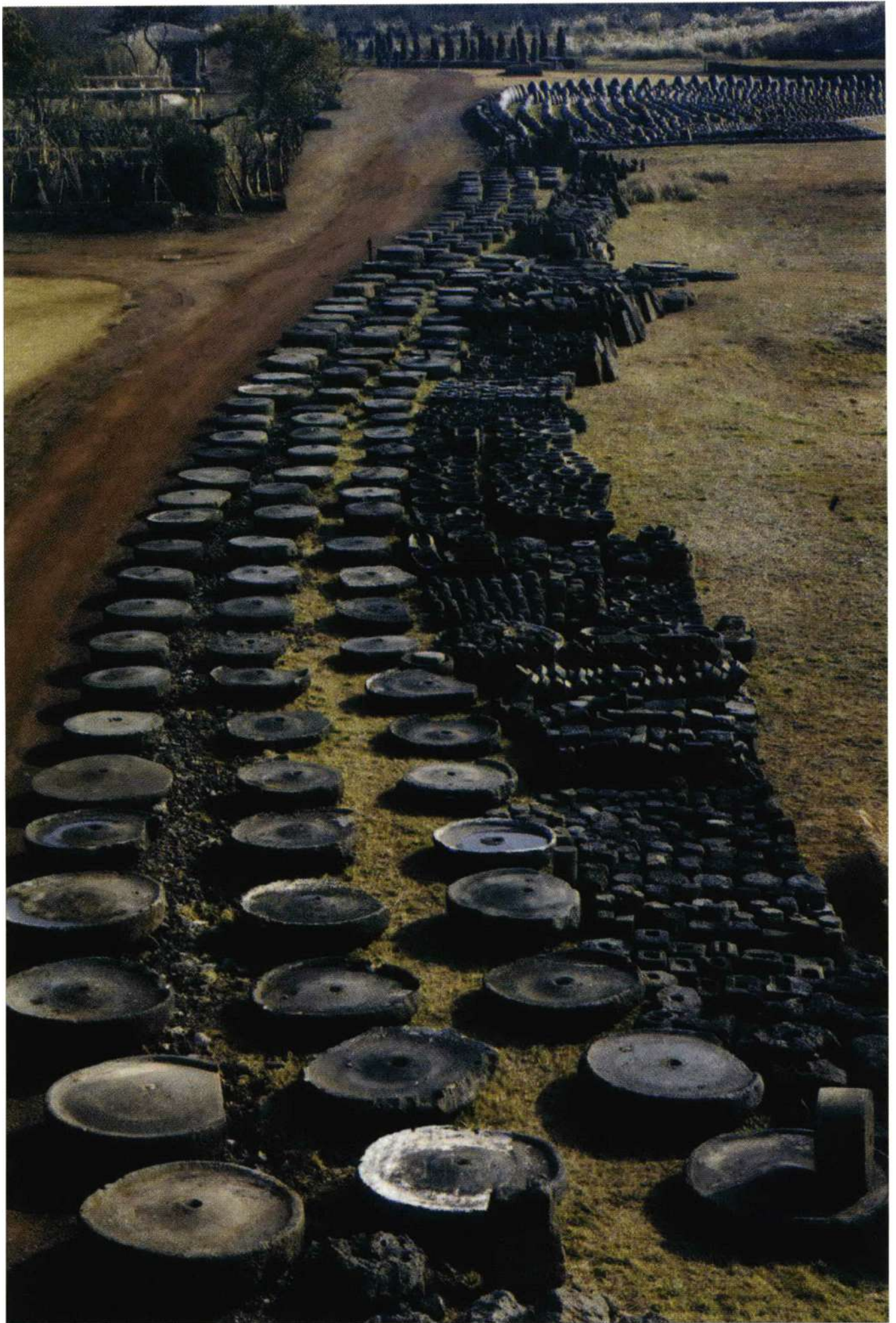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원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이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적입니다.

2011. 4. 25.

버나드 웨버(Bernard Weber, New 7 Wonders 재단이사장)



제주돌민속품 야외전시

‘오래된 유물, 후손만대에 전하자.’
(千古遺物 萬代傳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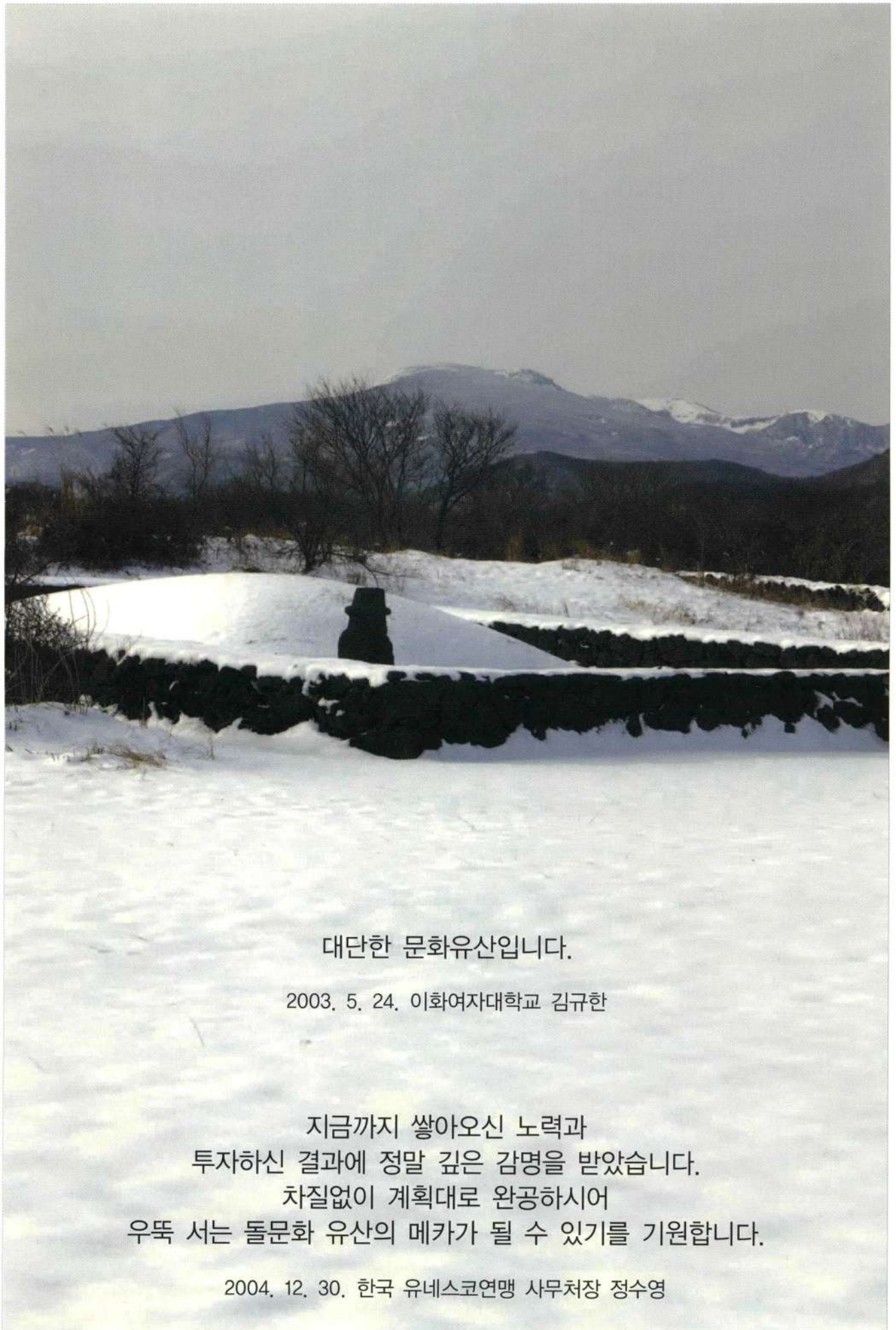
2006. 8. 24. 故김대중, 이희호 前 대통령 부부

60여년의 성상을 혼신을 다하여
제주도 선현들의
기상과 얼이 담긴 석물들을 수집하시느라
그 노고에 대하여
소생으로선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후일 후생들에게
일그러져가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현들의 전통문화생활을 재조명함으로써
제주도와 한라산 자락에
엮히고 서린 유적들
그 값진 유산을 출시 보존함으로써
한민족은 더 한층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탁월한 지혜로서
세계만방에 탐방객들로 하여금
웃겼을 여미게 하고
지대한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5. 9. 25.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장두석



대단한 문화유산입니다.

2003. 5. 24. 이화여자대학교 김규한

지금까지 쌓아오신 노력과
투자하신 결과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공하시어
우뚝 서는 돌문화 유산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4. 12. 30. 한국 유네스코연맹 사무처장 정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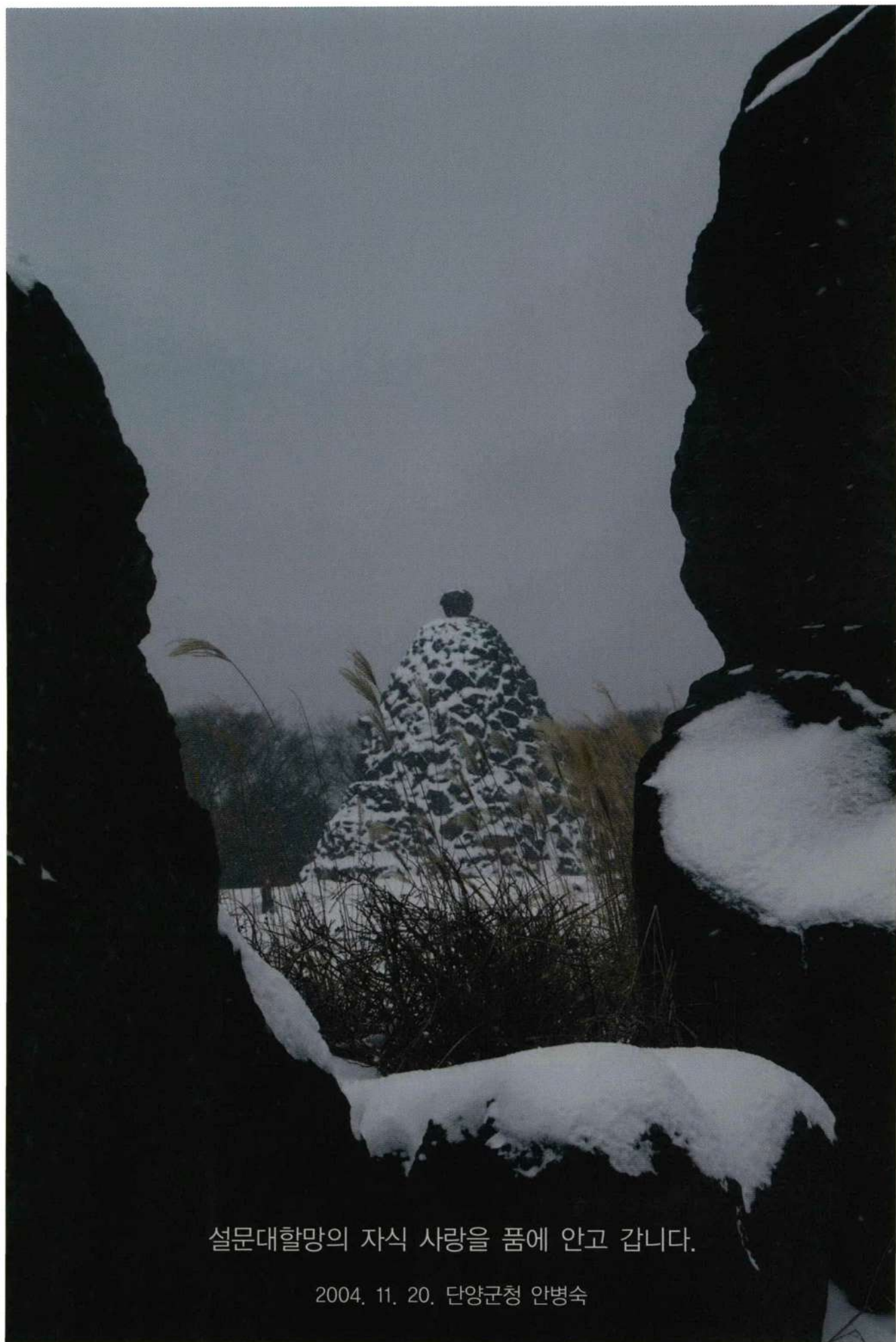
돌하르방과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일의 명소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3. 박서보 화백

제주의 혼을
되살리는 돌문화공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04. 4. 19.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



설문대할망의 자식 사랑을 품에 안고 갑니다.

2004. 11. 20. 단양군청 안병숙



석탑과 어머니의 방

“설문대할망 전설 작곡에 영감”

제주돌문화공원을 둘러보며
섬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설문대할망 전설 등은
곡을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젊은 관악 거장 야곱 드 한(Jacob de Haan)
(2008. 3. 11. 한라일보 / 한국현 기자)

멋진 돌조각을 병풍 삼아
춤 한 자락 추고 싶어라.
아, 멋진 가을 어느 날!

2012. 9. 25.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춤쟁이 김문숙

제주도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보고 싶거든
제주시 조천읍에 자리 잡은 돌문화공원에 가 보라.

12

‘자연을 최대한으로, 인공을 최소로’라는
환경우선 정신이 담겨있는 그곳에는
척박한 여건에도 제주의 것을 지켜온
제주인의 지혜가 햇살처럼 눈부시다.

제주인의 삶을 만나고 싶거든
희귀한 돌의 자태에 신비롭게 빠져드는
제주돌문화공원에 가 보라.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전설이 숨 쉬는 그곳에는
눈물겹도록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목젖 타는 그리움이 흥건하다.

돌 · 바람 · 여자가 많아
삼다의 섬이라 부르는 제주도.
눈만 뜨면 보이고 발길에 채이는 돌도
그곳에는 소중한 자연이고 역사이고 문화로 꽃핀다.

부산 해운대에서

2008. 3. 19.
시인 김희영



설문대할망을 상징한 용암석 (막내아들을 안고 서 있는 그림자의 모습이 일품이다.)

돌문화공원,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내게는 온 세상 전부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사랑합니다!

2012. 9. 25.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연극배우 백성희



모자상



평화의 섬, 생태의 섬에
돌문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2005. 2. 19. 영산강유역 환경청장 신원우

“화산섬 제주를 배워갑니다”

첫 방문한 제주의 인상을 묻자
제주돌문화공원과 주상절리를 우선 꼽는다.

“특이한 제주 돌의 형상과 바람이 많은 바다,
나지막하면서 넓게 펼쳐진 산의 풍광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나라보다 특이하고 아름답다.”

미국 세계분재우호연맹 총재 솔리타 로사데(Solita D.T.Rosade)
(2008. 10. 26. 제민일보 / 문정임 기자)



제주동자석 야외전시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보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신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선한 가치와 마땅한 이치를 바로 세우시고
부디 빛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 2. 7. 수덕스님



정주석 상징탑

민속문화유산, 민족의 자존심.

2001. 10.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서정배



안개 낀 전설의 통로

한반도 정신문화의 계승지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원합니다.

2013. 3. 26.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충식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제주돌문화 사업에 감사드리며

후세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4. 12. 14. 한나라당 제주도 여성위원회



설문대할망 상징탑을 향해 나란히 서 있는 오백장군 군상

인생의 삶을 상징하는 돌문화는
우리의 유산으로 세계화의 초석된다.

2002. 9. 19. 대흥초등학교장 양창식

바위의 아름다움이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군요.

2010. 11. 27. 미국 뉴욕 맨하탄 교당 원불교 유엔사무소장 이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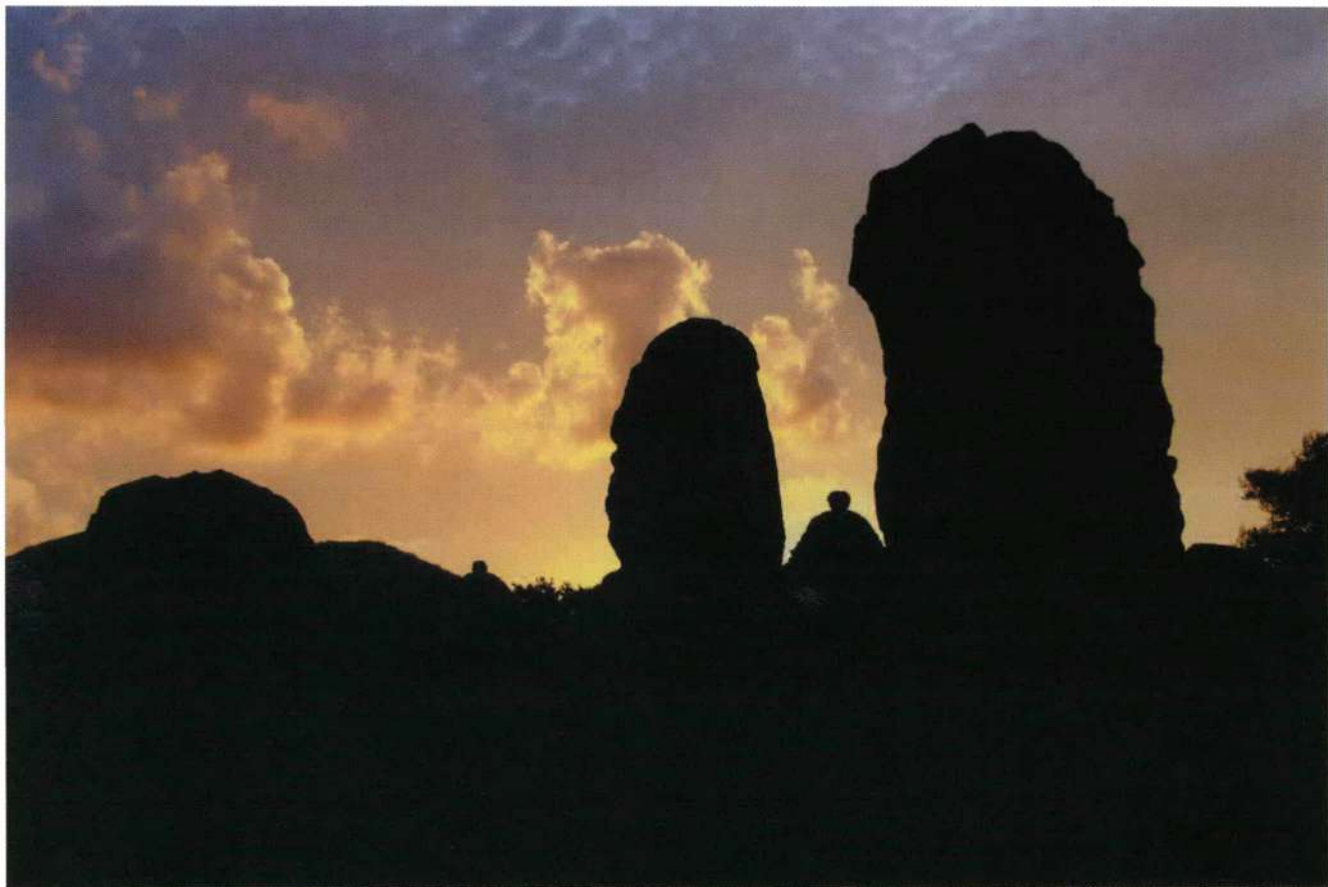
설문대할망제 제단

가장 제주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드시는
백 원장님의 노고와
신철주 군수님의 용단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5. 4. 1. 한마음병원 이유근

제주돌, 용암이 빛은
설문대할망의 신화가 깃든,
문화유산으로 자손만대 길이 보전되기를...

2011. 1. 28. 국회 지경위 수석 김호성



전설의 통로와 설문대할망 상징탑

어둠 속,
땅 속, 집 속 등에 있던 것들이
어떤 분에 의해 빛을 보고
후손들에게 선조의 영감이 이어질지이다.

2004. 10. 16.
제주산업정보대학교 임태준

돌, 살아서 오늘
우리 곁에 숨쉬고 있는 돌!
그대 영원히 이 곳에서
생명의 불꽃 타 오르다.
북제주군의 돌문화공원에서!!

2004. 12. 4.
산림청장 조연환



호수석

자연이 빚은
경이로운 돌문화를
영원히 간직하여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2011. 11.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영실중앙무대

오백나한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움으로 남는 공원.
우선 군수님과 목석원 원장의 가슴으로 하시는 일에 사랑과 격려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
세계인의 가슴에 아름다움과 놀라움으로,
그리운 곳으로 남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2003. 3. 10. 김현숙



하원동 탐라왕자묘 3호 (재현)

제주의 돌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습니다.
아픈 역사에 대비되는 자연에
어지러울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베트남 국민시인 찜 쩡(Chim Trang)
(2007. 10. 30. 제민일보 / 허영선이 만난 '사람')



훈장묘 (재현)

제주의 얼과 문화,
영원한 민족의 자산.

2005. 1. 19.
국회의원 김석준

돌 하나 하나에
생명과 영혼을 불러 넣으신 이 공원이
제주의 영혼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2013. 제주위클리 대표 송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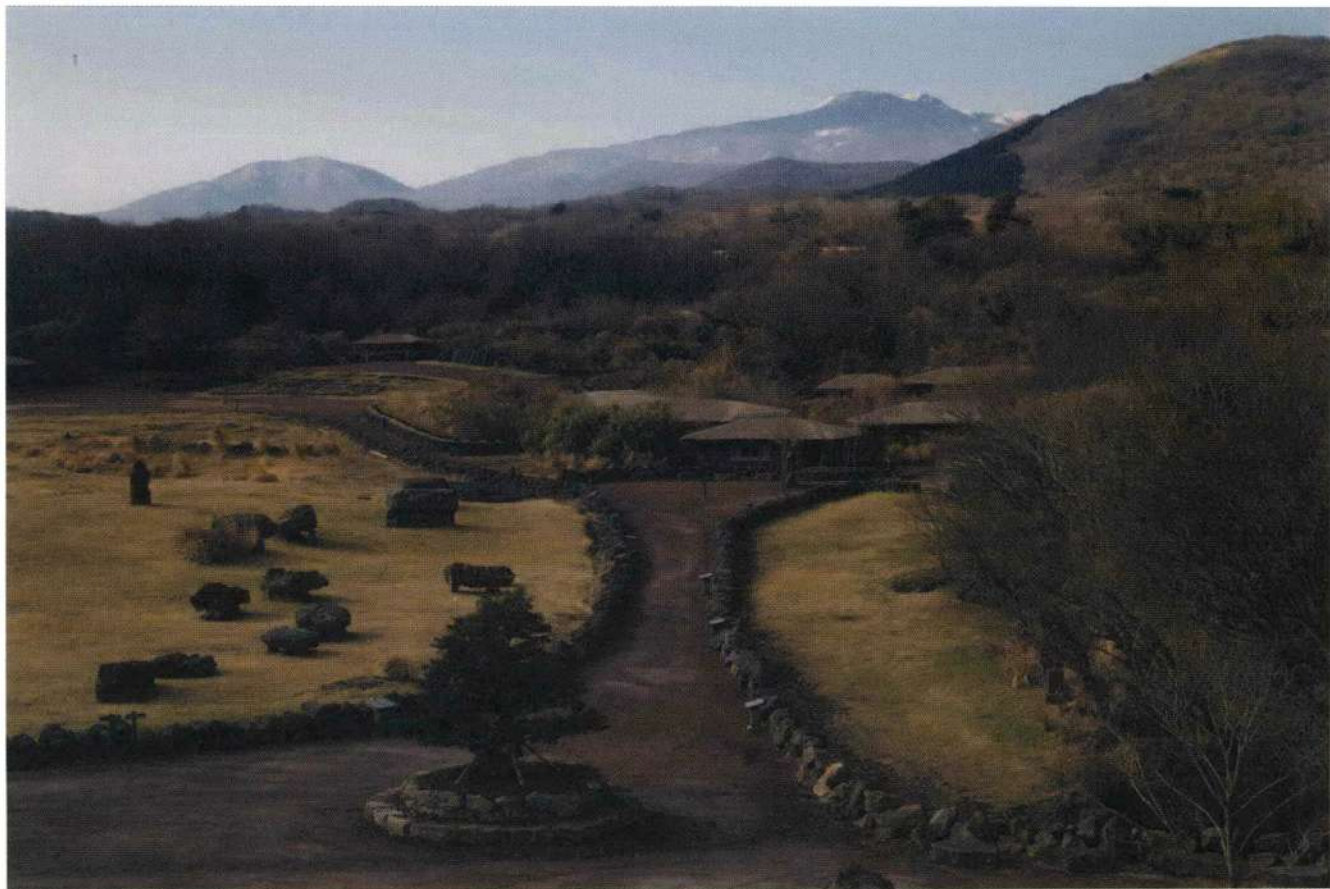


제주전통초가 세거리집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태고의 문명세계 연상.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본
제주의 전통 초가집과 돌하르방은 아주 깊은 인상을 주다.
기이한 형상의 돌들에서는 태고의 문명세계를 느끼게 하다.

중국 영화 '인생'의 원작자 위화(余华)
(2007. 10. 26. 제민일보 / 허영선이 만난 '사람')



시대별, 기능별 제주돌문화전시관 너머로 보이는 한라산 정상

동행한 잰 스튜어트(Jan Stuart)
대영박물관 아시아부장이
제2코스 돌문화야외전시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이 감동을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2012. 5. 28.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김홍남 일행



물장오리를 상징한 연못

천혜의 돌을
천고의 무심으로 가꾸어 내신 정성을
천심의 기원으로 발전 기원 합니다.

2008. 8. 16.
리움 삼성미술관장 홍라희

대자연의 위대함에
인간의 위대함이 더하여
길이길이 보존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제주돌문화”에 경탄과 외경을 느낍니다.

2011. 1. 17.
환경부장관 이만의



큰 지그리 오름에서 내려다 본 제주전통초가 "돌한마을"

오늘 네번째 왔습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신 돌문화공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대표 상징으로 단연 0순위입니다.

2008. 7. 28.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연극배우 박정자

자연과 잘 어울리는 돌박물관
전시자료도 훌륭합니다.
아이들과 다시 오고 싶네요.

2011. 1. 8.
청주중학교 정관숙



맷돌 상징탑

세계자연유산을 유지, 보존, 발견하여
후세와 많은 사람들에게 뿌듯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과 집념에 찬사를 보냅니다.

2010. 10.
이소희

너무 아름다운 곳이네요.
언제고 다시 찾고픈 곳... 성공을 기원합니다.

2004. 10. 20. 배경은 프로



교래자연휴양림 야외무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도의 심장을 오늘에서야 본 느낌입니다.
 이 곳의 기운을 받아
 좋은 기운을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2013. 4. 5. 배우 황금희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돌문화공원과 교래휴양림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 2. 11. 산림청 김상균

길이 남을 명소입니다.

2010. 11. 이명애 (화가)



<갑돌이의 일생>의 갑돌이와 석순이 결혼식 장면

사람이 살면서
어이 욕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목석원을 만들어 우리네 가슴을 후비드만
돌의 섬에서 돌로 발길 움직이지 않게 하네.

2002. 8. 20.
시인 명기환

평생 아껴 모으신 제주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유산이 아름다운 제주, 북제주군을 더욱 빛내기를...

2004. 12. 27.
북제주군 공직자 가족일동



죽술을 상징한 연못

제가 어릴 적 보았던 자연 그대로의
돌 · 바람 · 사람조차 사라져가는
「관광도시」 제주는 요즘 서글픔이었습니다.

새로이 찾아오는 이들은
「관광도시」 제주만 볼 수 있을 뿐.
「자연 그대로」의 제주는 보지 못할 것 같아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연과 옛적 그대로의 제주를
최대한 남기려 노력한 제주돌문화공원을 만나고 나니,
알지 못할 눈물이 고입니다.
이 곳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민 · 관의 여러분들. 특히 백운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큰 절 올립니다.”

2013. 6. 20. 이승홍



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제주돌문화공원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04. 10. 27. 2080 CEO Forum 대표 박봉규

축, 돌문화공원.
제주토박이로 60평생을 살았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제주의 자연과 민속
그리고 열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자연유산을 길이 보존하소서.

2004. 12. 19. 제주토박이



제주돌박물관에서 바라 본 한라산 정상

자연의 아름다운 혼을
살포시 품은 돌문화공원.

제주의 뿌리가 여기에서
숨 쉬고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과 창작공간이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백운철 단장님의 혜안으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당으로 가꾸어 주시길 염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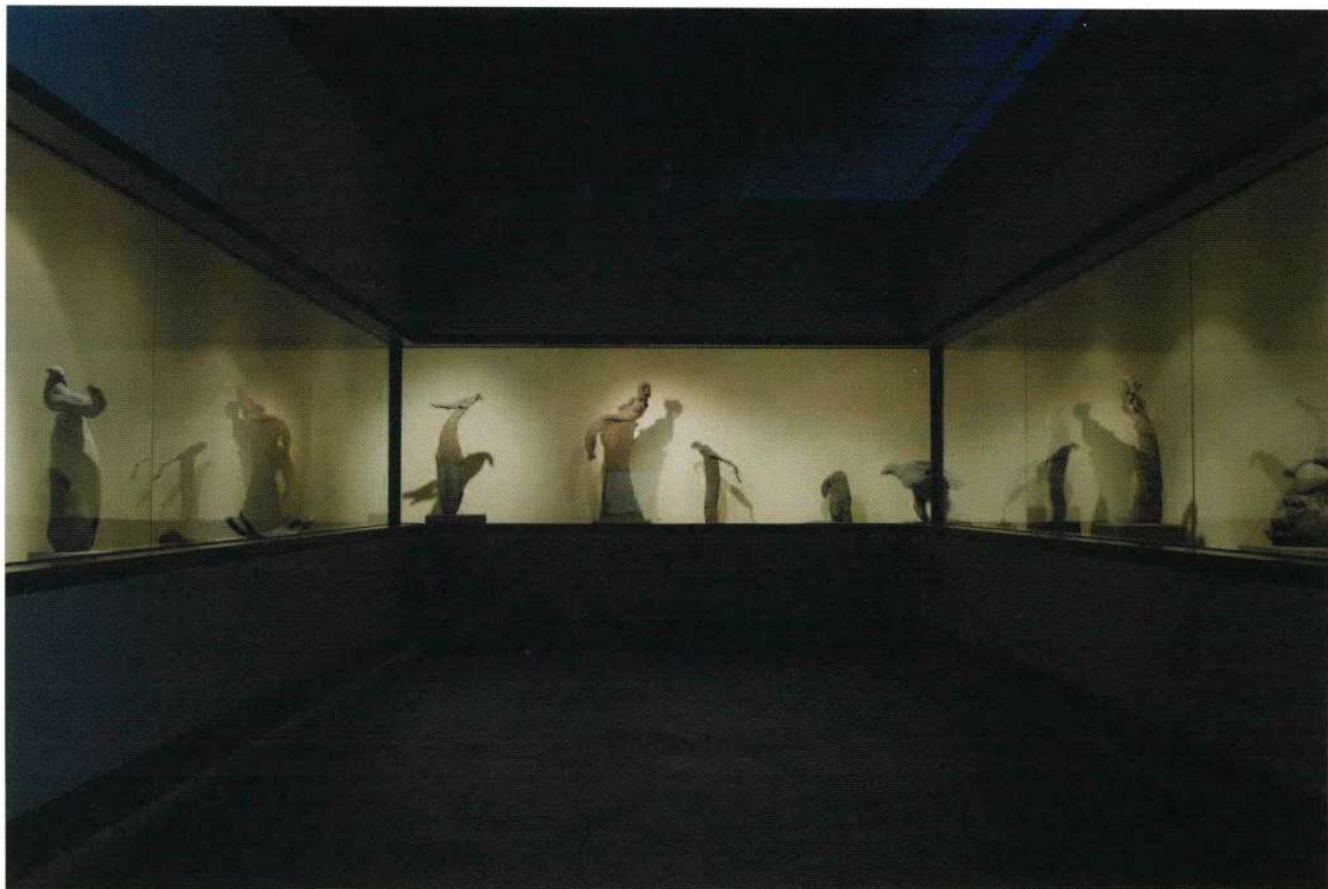
제주형성전시관

역사의 숨소리와
발자취를 담아 돌문화 박물관을 만들어
후세에 남겨주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 일 이루셨습니다.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2005. 10. 한세대학교 권창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주에 향토성과 예술성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2. 6. 9. 정영남, 심우섭



화산탄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자원과 역사보존,
세계 최고의 자연석,
돌박물관 자랑스럽습니다.

21세기 제주도를
세계 속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이...

2010. 11. 20. 관세청장 윤영선



제주용암석

외국 화산학자, 돌문화공원 '최고'

돌박물관과 돌문화공원과 같이
다양한 표품을 전시한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화산과 화산암을 갖고 있다는
제주도민의 자량이 섬 전체에 가득합니다.

미국 하와이 힐로대학교 화산학자 켄 혼(Ken Hon) 교수
(2007. 6. 5. 미디어제주 / 윤철수 기자)

지구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
예술과 지질학.
환상적인 박물관!

2011. 9. 3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 가이 마틴(Guy Martin) 박사



돌갤러리

정말 독특한 화산 박물관이군요.
진정한 예술가는
자연과 자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박물관과 전시물들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독특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2010. 2. 27.

그리스 니콜라스 조로스(Nickolas Zouros)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국제전문자문위원)

제주의 멋진 화산석 박물관!
다시 오겠습니다.

2010. 11. 27.

독일 마틴 코지올(Martin Koziol) 박사



지구환경을 걱정하며 구수(九首)회의를 하고 있는 제주동자석들

제주돌문화공원 놀랍고 놀랍도다.
길이 보존하기를!

2005. 5. 김종학 프로덕션

돌문화공원을 보고 감동 또 감동!!!

2008. 5.
세계문화예술올림픽 한국델픽위원회위원장 이상만



정주석 상징탑

돌돌문화 세계자랑.

2006. 10. 16.
원불교 최고지도자 前 종법사 좌산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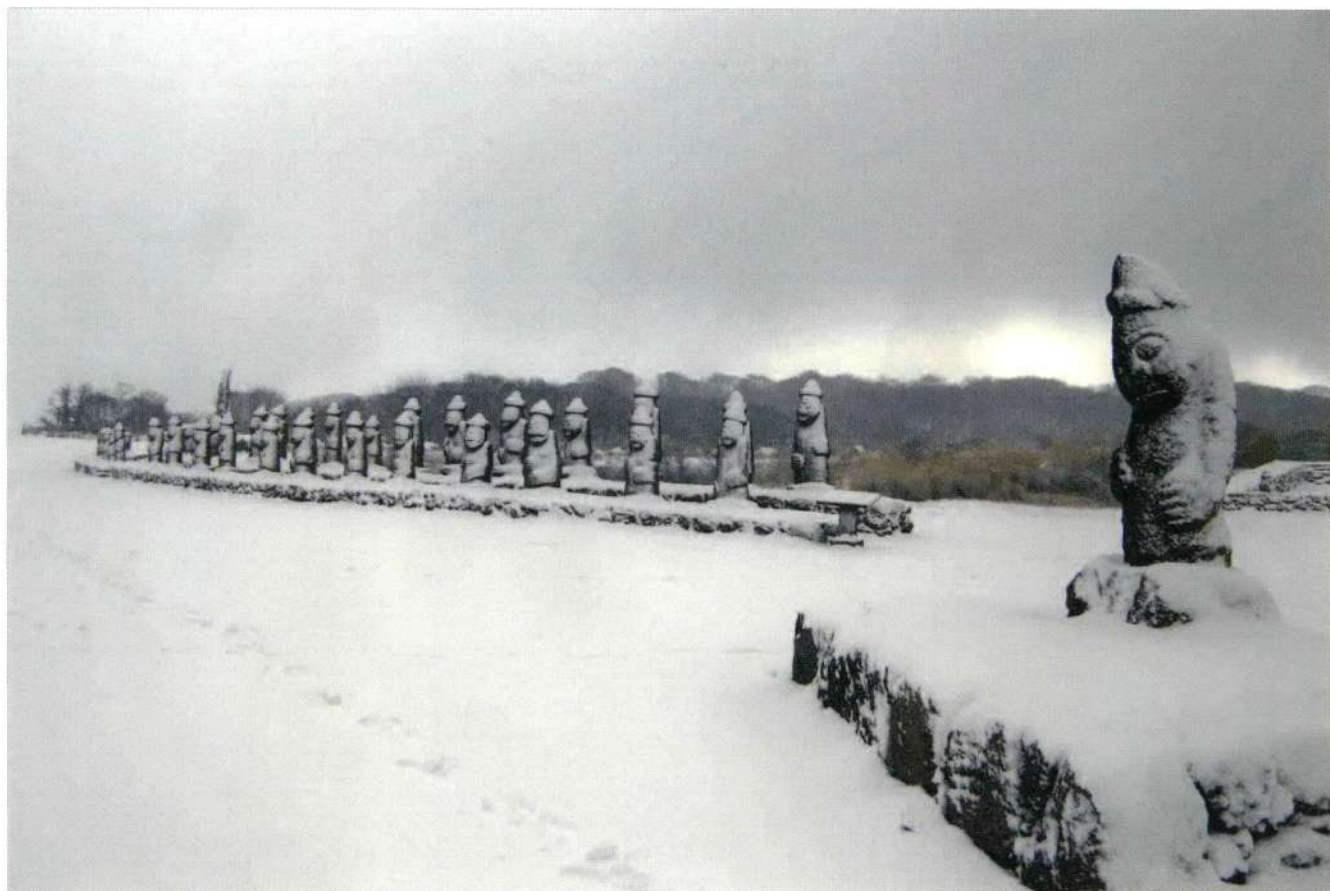
항아리 야외전시

제주도의 산 역사를 만들고
지키신 공력을 높이 찬양하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박물관이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2002. 3. 19.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유덕형

제주도의 보물인
귀한 돌문화 견학을 통해
제주도를 사랑하는 공군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제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 6. 9. 공군대령 염성진



돌하르방<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료2-21호>과 48기의 재현 돌하르방

제주의 혼,
제주의 詩,
제주의 꿈이 어린
‘제주돌문화공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6. 6. 3. 열린우리당 김재윤 국회의원

이제, 제주문화의 얼을 이 곳에서 볼 수 있어
이 곳 제주도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 대업이 완성되어 제주의 얼굴로
전 세계에 제주를 알리는 세계 속의 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5. 1. 19. KBS 강민부



두문화공헌
 오백장군기려리에,
 오래 멀리갈
 제국사람들 살아나신 이야기
 아릅답게 당기기들....

2013. 1. 30

이정수, 이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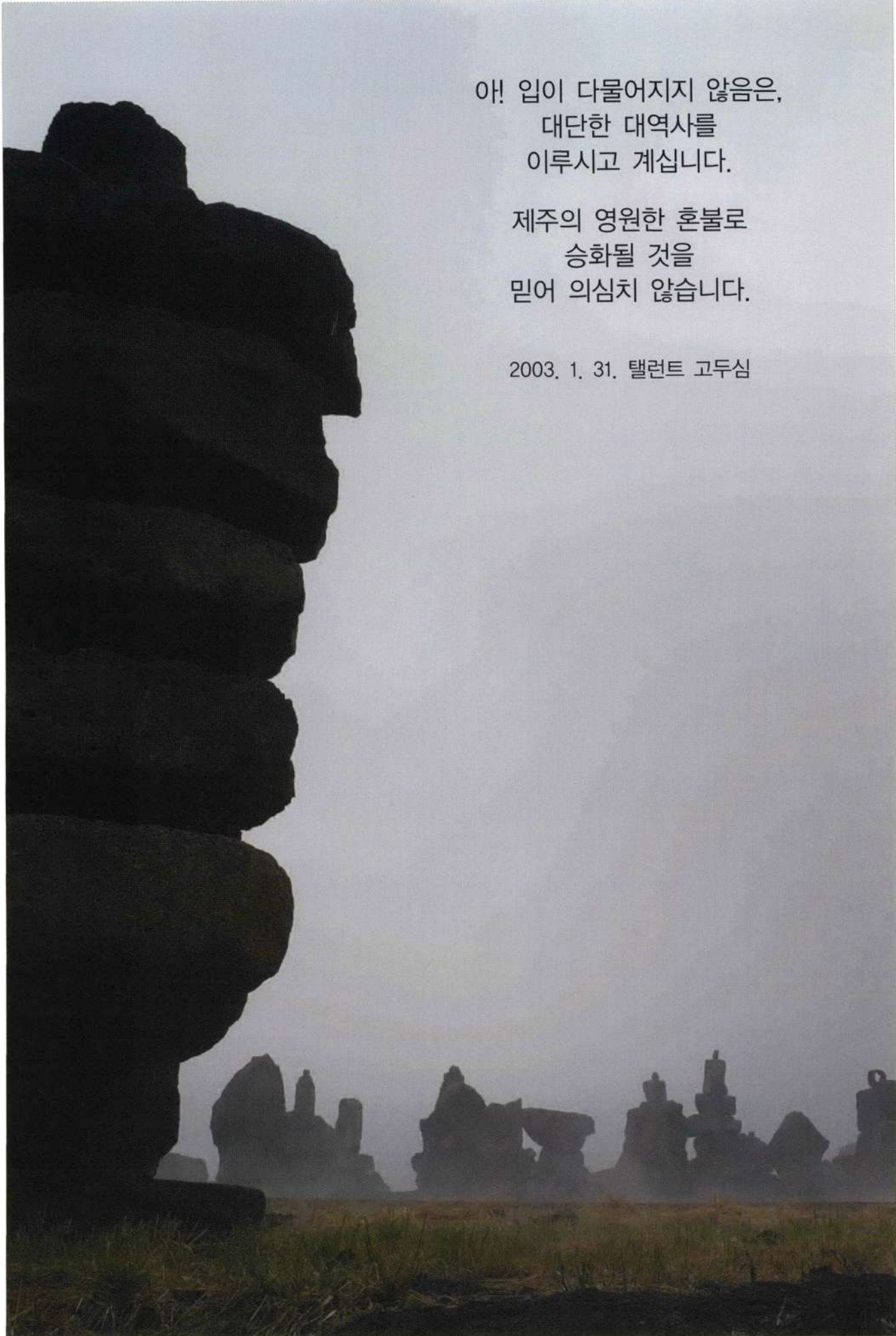
45

자연과 역사를 읊아놓은 이곳은
제주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04. 8. 3.
독일에서 온 사회학자 송두율, 정정희

역사와 전통과 미래의 접목. 제주여 영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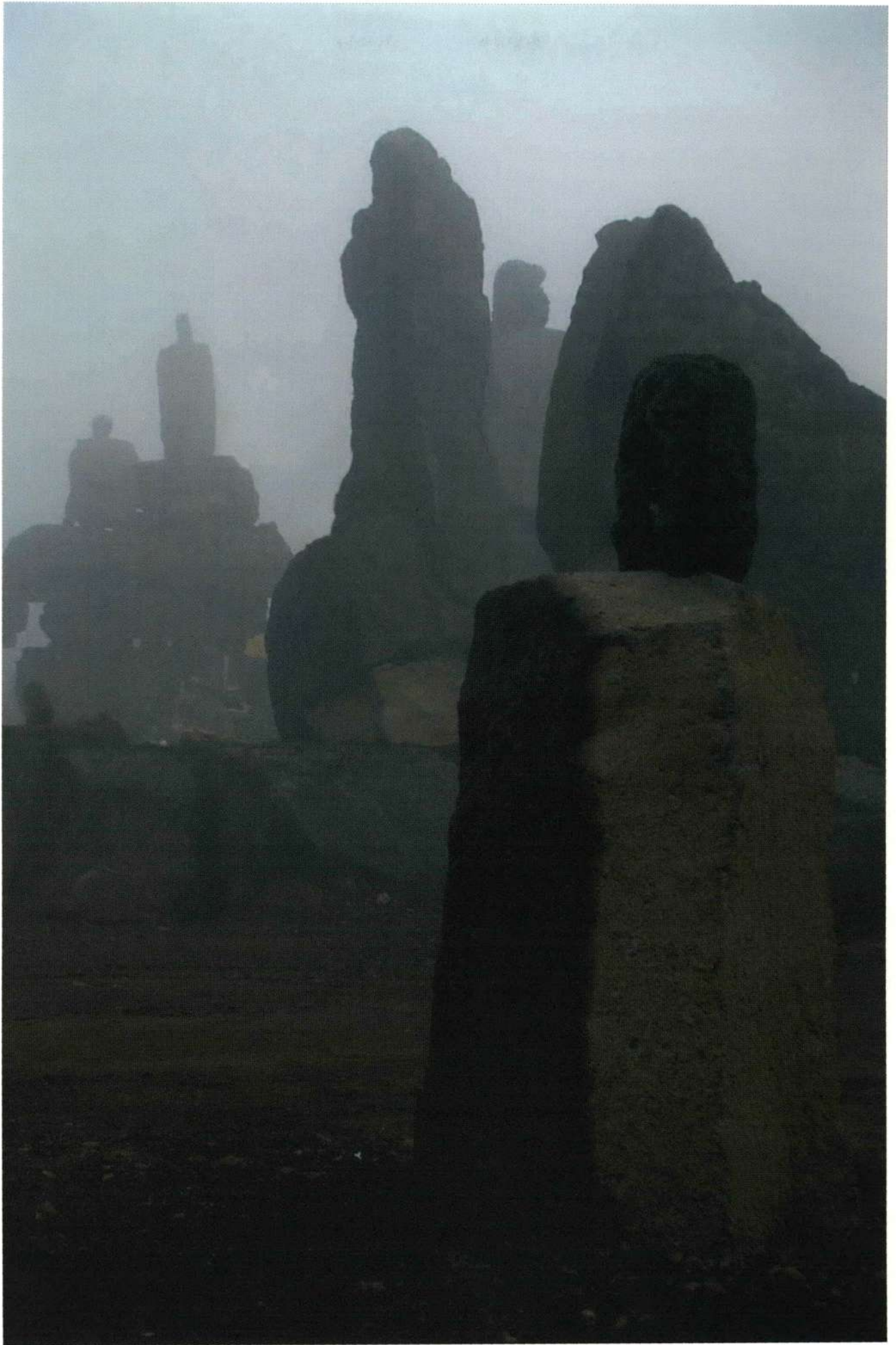
2004. 12. 19.
고시홍, 좌연선



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음은,
대단한 대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제주의 영원한 혼불로
승화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3. 1. 31. 텔런트 고두심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제주돌문화공원, 자연과 예술의 조화에 감탄”

제주의 아름다움과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살린 돌문화공원의 조화로움은 장관입니다.

제주의 역사를 돌문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훌륭한 박물관입니다.
제주돌문화와 교류를 희망합니다.

중국공예미술대사 주병인(朱炳仁, Zhu Bingren)
(2008. 9. 15. 제주의 소리 / 김봉현 기자)

이렇게 예술적이고
거장의 작업을 하시게 된
용기를 높이 사며 축하드립니다.

2005. 5. 29.
프랑스 루앙대학교 총장 장-뤽 나엘



‘오백장군갤러리’ 진입부에 사열하듯 서 있는 오백장군 상징석

우주의 창조를 실제로 보고 가는 느낌입니다.
돌 하나하나에 신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과정도
어쩌면 우주가 창조되었다가 변화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너무 신비하고 감명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30.
원불교 박도선 합장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노고가 놀랍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 10. 1. 짚풀생활사박물관장 인병선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바위의 아름다움이 생생히 드러나는군요.
큐레이터의 재능이 감탄할만합니다.

2011. 9. 1.
주한 인디아 대사



‘오백장군갤러리’ 진입부의 지구본과 오백장군 상징석

작은 우주! 너무 아름다워...

2012. 9. 8.
EBS 이사장 이춘호

놀랍습니다.
시간,
그리고
돌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손길을 보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2011. 11. 2.
연천성당 전송규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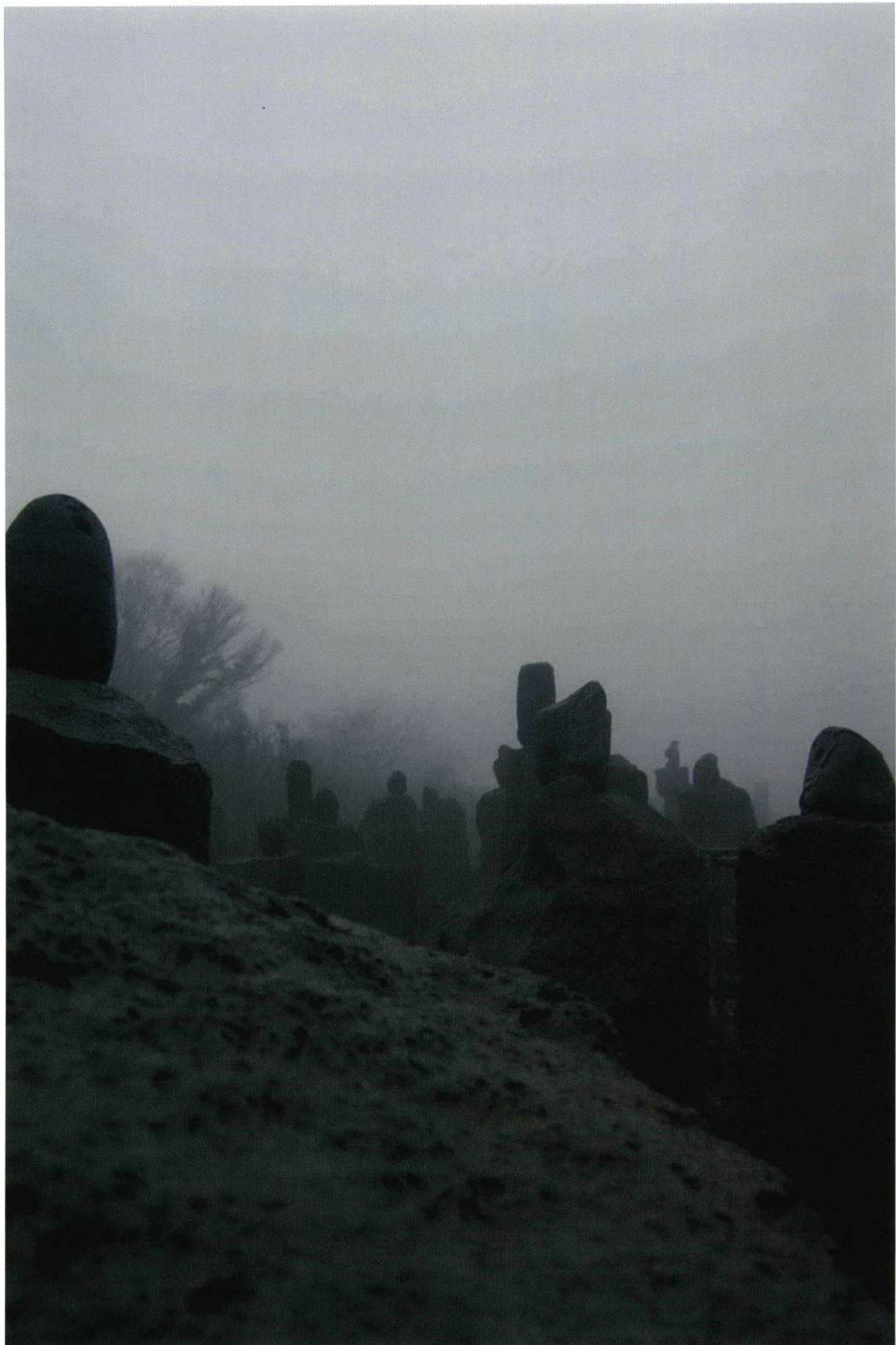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Non plus ultra!
더 이상의 최고는 없다.
전율을 일으키는 예술입니다.

2008. 8. 9.
동국대학교 문과대 겸임교수 박귀애

돌문화공원은 지고한 예술성을 발휘하여
이곳에 정신적인 핵심지를 만들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최적의 델픽장소가 될 것입니다.

2008. 10. 14.
독일 세계델픽위원회 사무총장 크리스찬 키르쉬(J. Christian B. Kirsch)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감동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처음 돌문화공원 팸플릿을 받아보곤
한 번 방문하리라 생각하던 차에,
오늘 한라산 등반 후 바로 이곳으로 이동해서
돌문화공원을 방문하곤 감동에 벅차 올라
숙소로 돌아와선 바로 이 글을 올립니다.

다른 나라나 육지의
여타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둘러 보면서
정말 감동스럽게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곳 돌문화공원을 둘러보곤 내내 나와 아내는 감탄에 젖어
한라산 등반의 피로도 잊은 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자부심에
마음 뿌듯했습니다.

55

정말 이곳 돌문화공원을 기획하신 분께 존경을 표하고,
잘은 모르지만 이 곳을 기획 추진하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북제주군수 님의
혜안과 추진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드넓은 제주 평원에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계획하신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설립 취지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길 원하고,
대한국민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돌문화공원으로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하며,
모든 관계자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주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곳은 필수 관광코스라고 감히 추천드립니다.
최소 3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자녀분들과 동행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들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질공원〉 마지막 관문

지난해
이미 제주를 찾은 적이 있는
이브라힘 코무 교수(말레이시아)는
제주돌문화공원이
지질공원에 추구하는 교육과 관광,
역사, 지역 문화 등이
잘 어울려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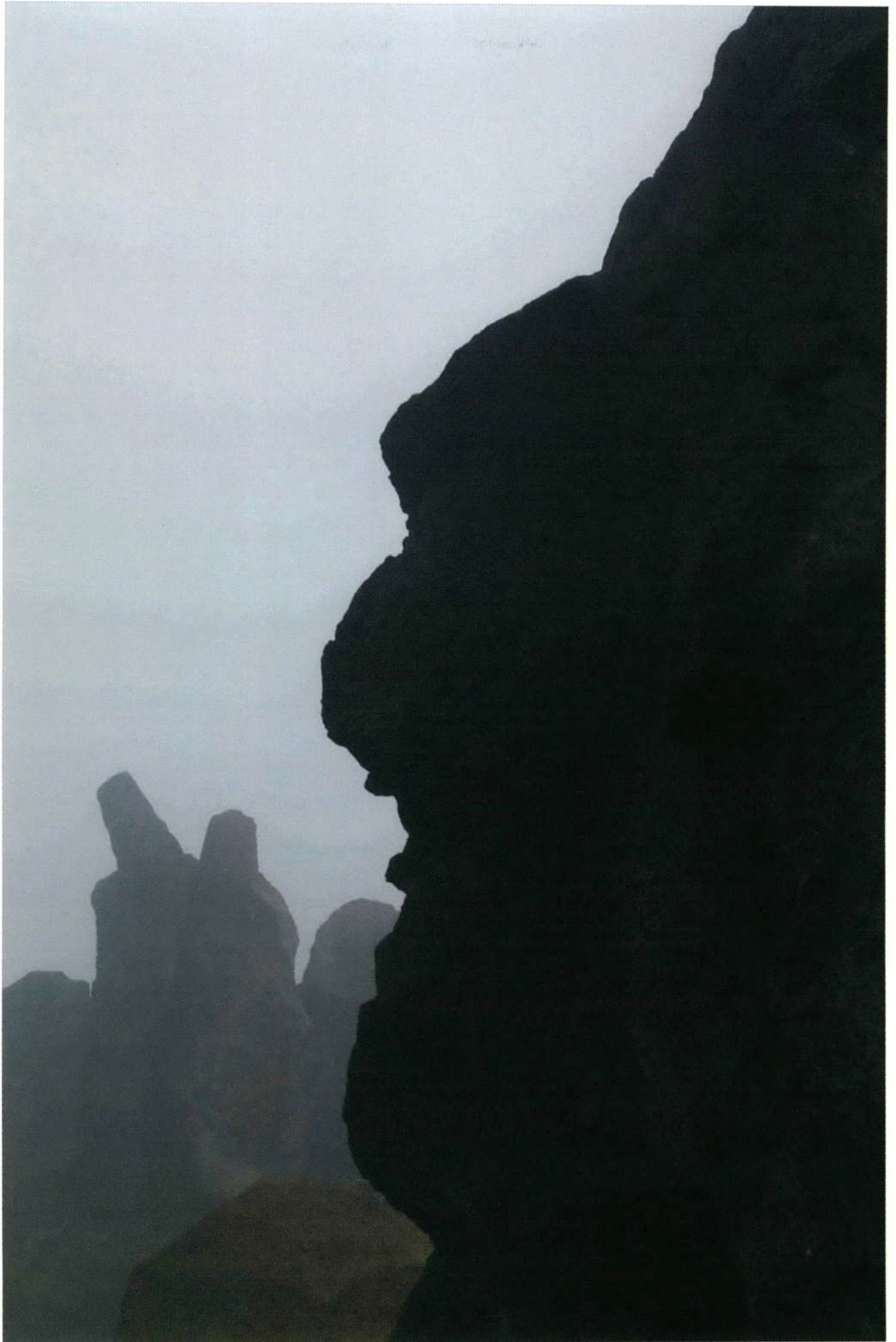
이곳(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돌을 모아둔 곳이고,
또한 제주의 돌과 문화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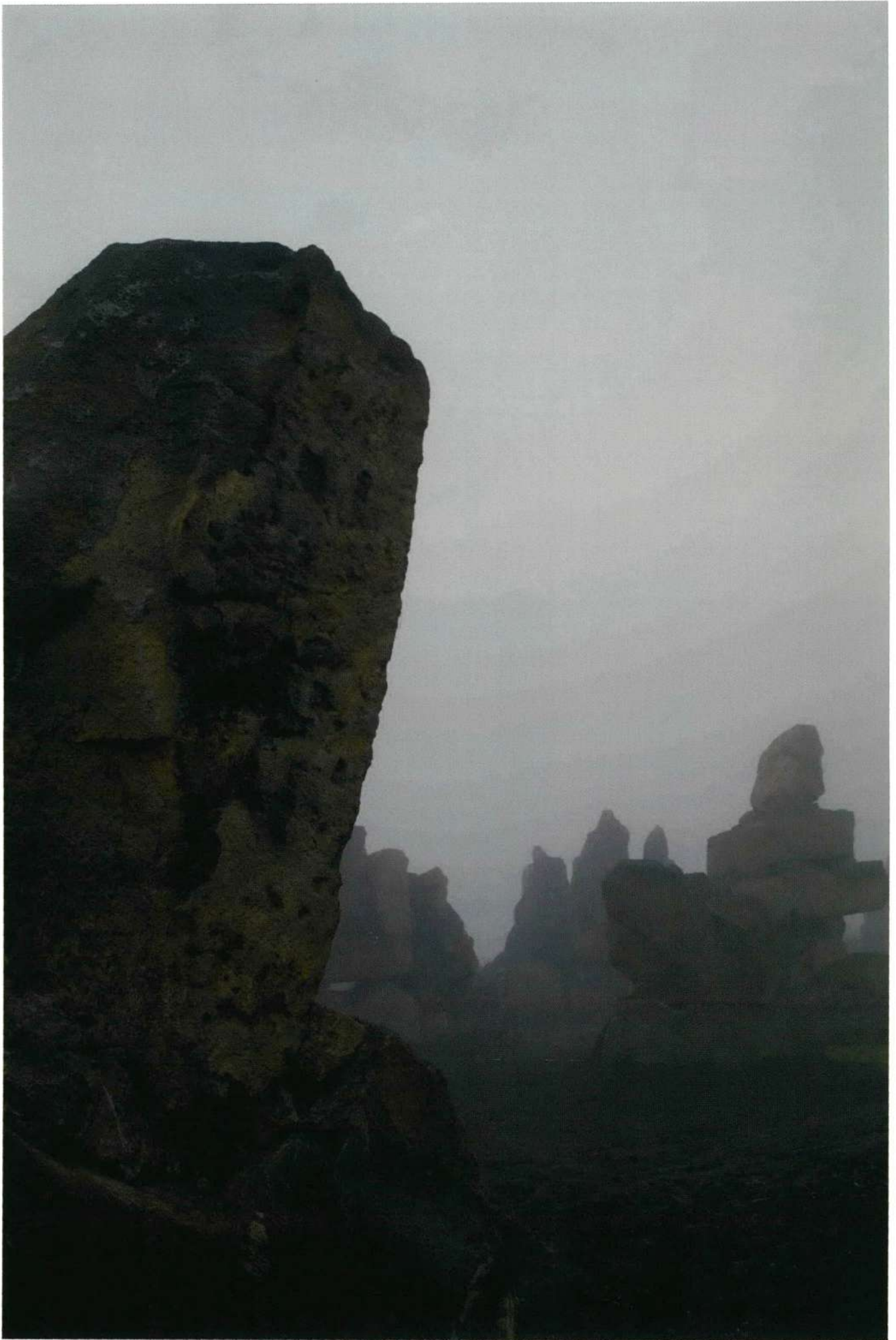
돌문화공원을 둘러본 뒤 작성한 방명록에는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소속 실사단
이브라힘 코무(Ibrahim Komoo) 박사
(2010. 7. 27. KCTV / 여창수 기자)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라산과 바다 그리고 돌이 좋아
제주도를 수 차례 방문하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재작년에 이어
올 해가 두번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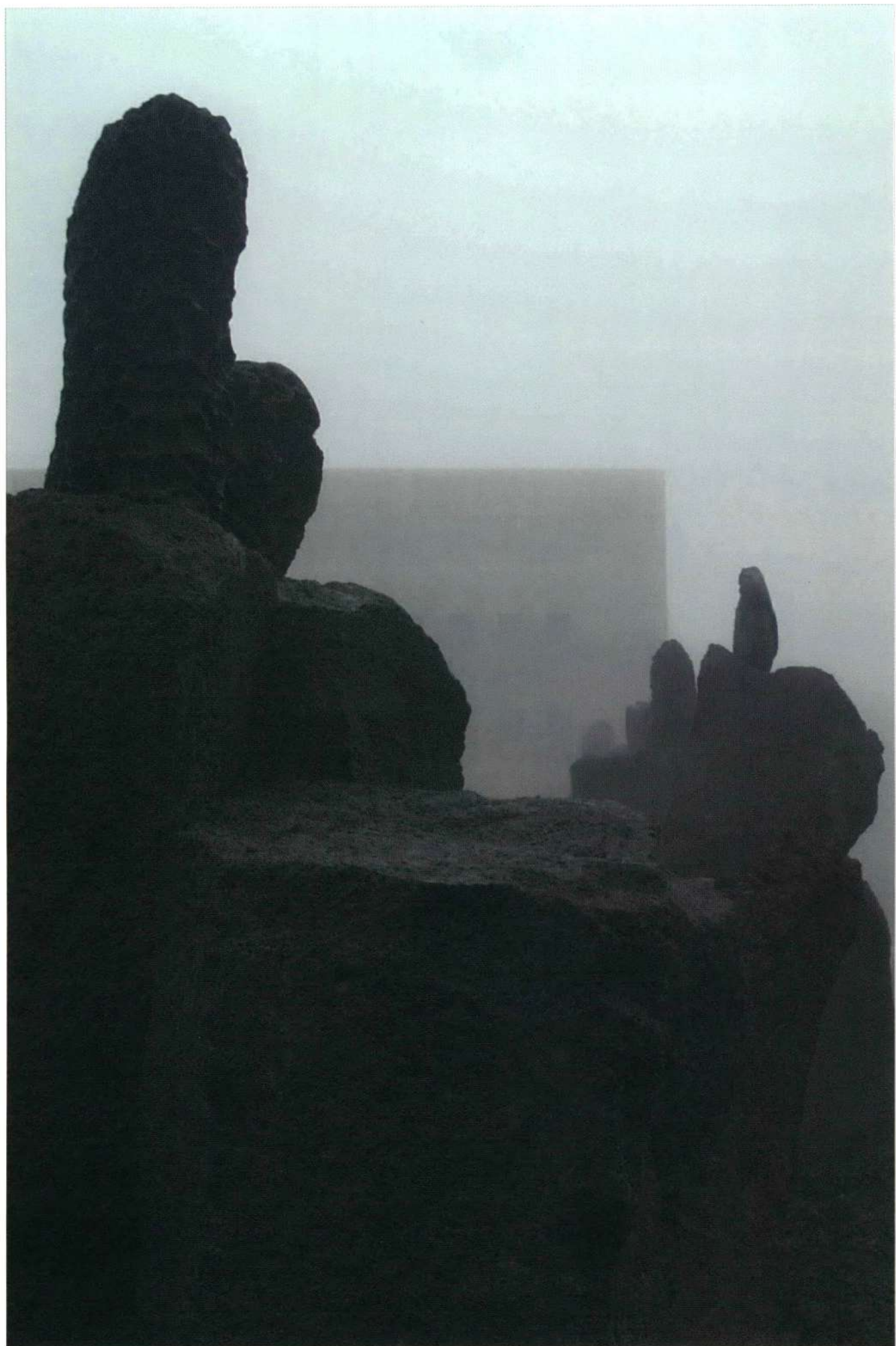
예전에는 저희부부만 방문했었고
올해는 서울에 사는 시동생부부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11월30일 오전)
인원이 네 명 뿐이어서 죄송했었는데
해설사 현춘심님을 만나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분의 제주를 아끼는 그의 인품과
또한 제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저희들 제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방해자의 “빛에서 빛으로”의 만남은
큰 황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하여
제주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며
해설사 현춘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백장군갤러리’ 진입부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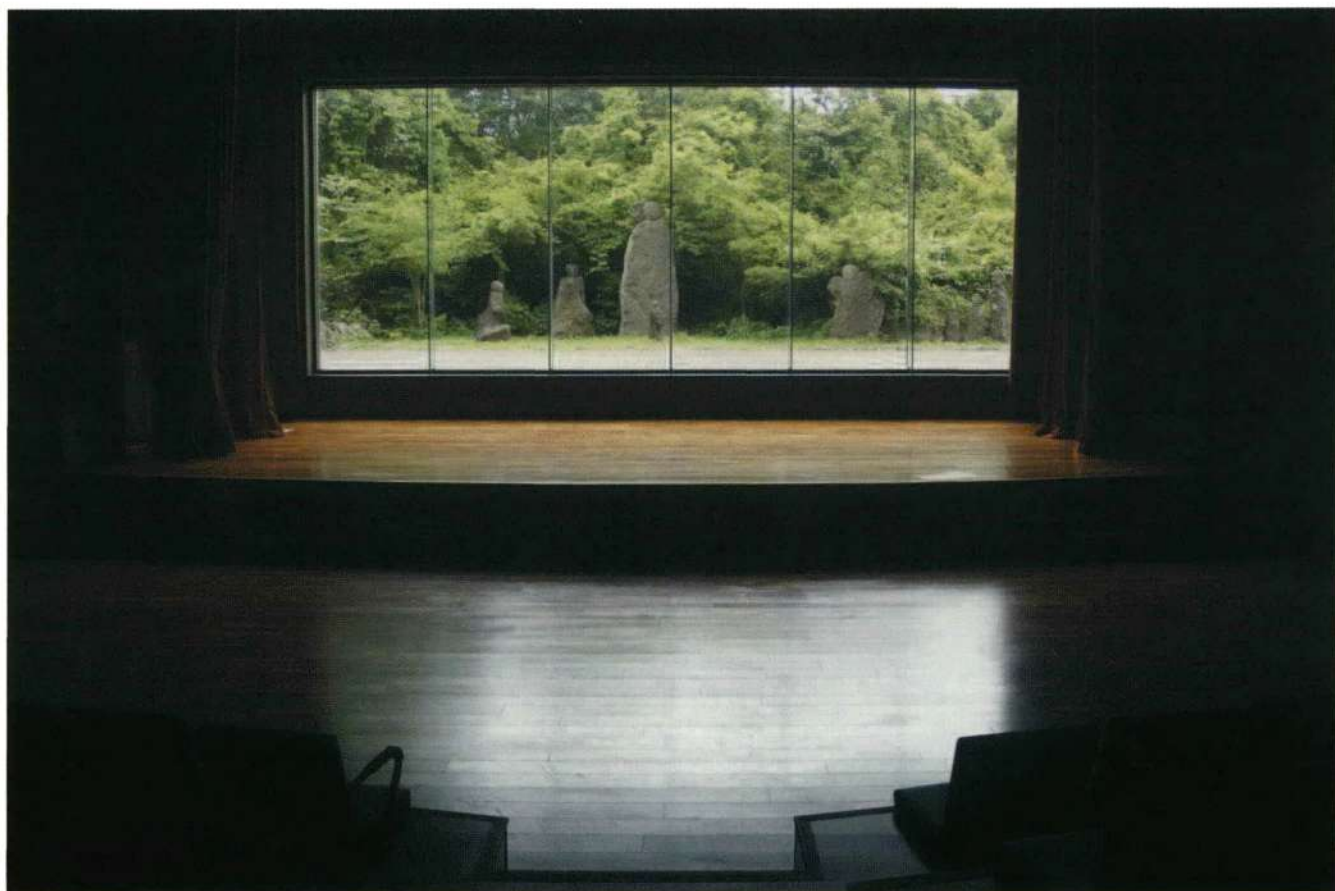
오백장군갤러리 전경

매료되어 걷는 걸음마다,
그리고 보는 시선 마다,
겨우 3일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자연 앞에서 완벽한 균형,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감사, 오 감사합니다.

설문대할망, 그리고 돌
순간순간 마다 이런 마법,
이런 후한 인심에 곧 다시 오고 싶다.

2010. 5. 13.
프랑스 연극연출가 Marie



무대 뒷벽을 허물고 대형 유리벽으로 대체한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세계적 영원한 제주의 보물.

2012. 6. 16. 연극배우 전무송

돌 속에서 영원을 찾는 제주돌문화공원.

2009. 8. 15. 피아니스트 서혜경

인류의 명소, 세계의 명소로 무궁한 기원합니다.

2010. 11. 27. 독일 쾰른(Koln) 원불교 이원조 교무 합장



죽솔을 상징한 연못 너머로 보이는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공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물관 자체도 잘 됐고,
공원이 예술적이에요.

앞으로의 계획도 봤는데
정말 예술적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공원이 될 것입니다.
큰 규모이면서도 아름답습니다.

2010. 1. 7.

독일인 한국학자 베르너 샷세(Werner Sasse)



한라산 백록담, 영실의 죽솔, 물장오리를 상징하는 돌박물관 옥상에 설계된 대형 하늘연못 (지름 40m, 원둘레 125m)

“공간과 돌의 이해 완벽한 제주돌문화공원에 큰 감동”

중산간지역이란 공간을 갖고
얼마나 창조적으로 이해했는지에 놀랐습니다.

공간과 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또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자연환경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

그것에 대해 너무나 잘 이해하신 분이
완벽하게 조성한 것 같아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예술가로서 박물관 안에 돌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멕시코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Ricardo Legorreta)
(2008. 10. 17. 제민일보 / 허영선이 만난 ‘사람’)



하늘연못과 한라산

완성된 돌문화 박물관
정말 훌륭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꿈과 낭만을!

2009. 11. 3.
일본 법정대학 건축과 박찬필 교수 일행

세계가 찾는 돌문화공원.

2012. 7. 30.
제주국제훈련센터 소장 정달호



황홀, 경의 그 자체입니다. 대단하십니다.
2006년 성대한 모습을 보러 꼭 오겠습니다.

2004. 12. 3. 선흥2리 노인회장

돌문화공원은 우리들의 문화유산이 아닌 세계만방의 유산으로 생각하며,
본 조성사업의 완공을 기대하며 소장님을 비롯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
우리 부산 제주시민회 노인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 3. 17. 부산 제주시민회 노인회장 홍성만

돌문화공원이 완성되는 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2010. 7. 20. 4.3중앙위원 박창욱



하늘연못과 오름

40년만에 다시 찾은 제주,
볼거리 많은 제주
그 중에 돌문화공원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고 돌아갑니다.

2008. 5. 22. 이숙희, 김복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표현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
우린 차마 담을 수 없는데...
자연이 스스로 조용히 담아낸다는 거...
그것도 오랜시간 동안 조용히...
대단함의 가치를 발견하고 갑니다.

2008. 6. 1. 송경자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2011. 4. 18. 이가건축 김이석

멋진 제주의 돌박물관이 건립되어
제주도민, 세계인의 정서함양의 향도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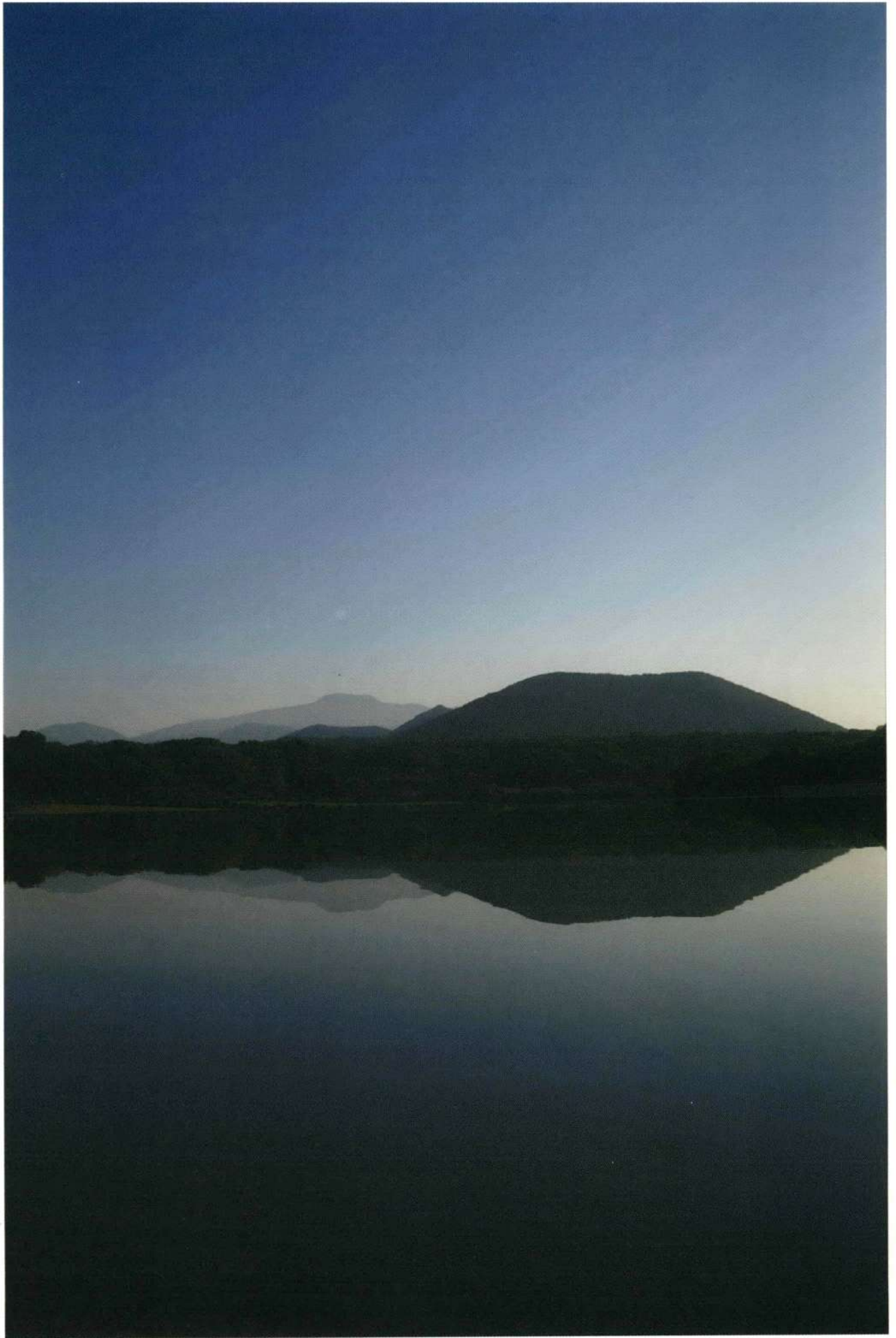
2002. 9. 19. 농협 북제주시군지부장 정재수

제주의 문화와 전통이
돌박물관을 통해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희망입니다.

2003. 5.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영업본부장

세계적인 문화
돌박물관 성공적 완성을 기원합니다.

2004. 10. 27.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김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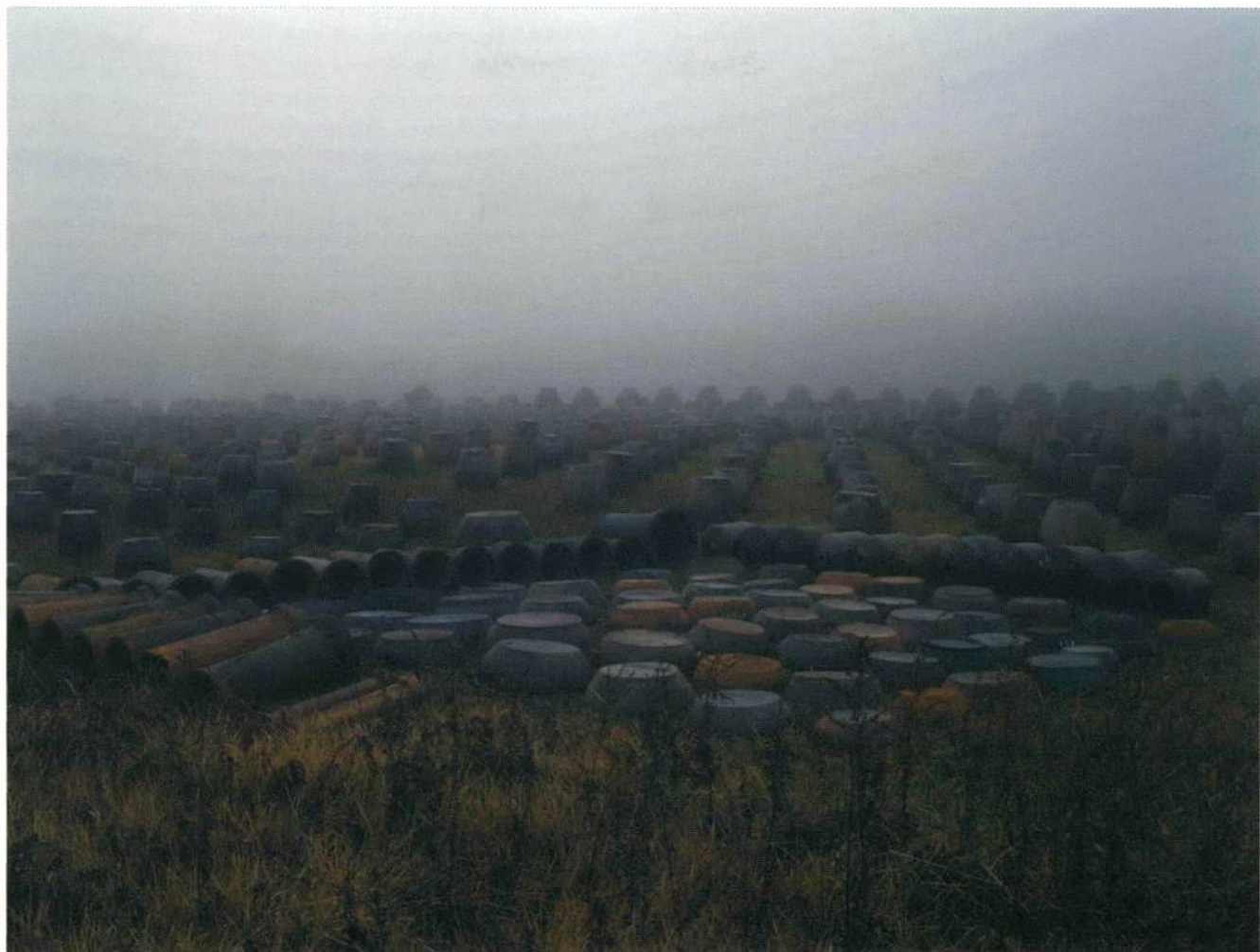


제주돌문화공원은 보배로운 곳.

캐나다 토론토시 6선의원 조성준
(2008. 1. 25. 제민일보 / 허영선이 만난 '사람')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 12. 4.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과 최선식



항아리 야외전시

제주특유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제주돌문화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가꾸어 여러 사람과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2004. 12. 25.
이진우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과 한라산

야! 하는 탄성 뿐입니다.

2003. 5. 1. 제주도의회의장 김영훈

돌이 보석임을 느끼게 해 주는 곳.

2009. 8. 6. 연기자 김상경



어머니를 그리는 선돌과 48기의 재현 돌하르방

보고 오라고 해서 와보니 정말 좋은 곳이요,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곳. 제주돌문화공원.

2008. 5. 7. 고 순

지척에 두고도 보지 못한 것, 오늘 이렇게 보게 돼 감사합니다.

2008. 5. 13. 제주대학교 여성대학 10기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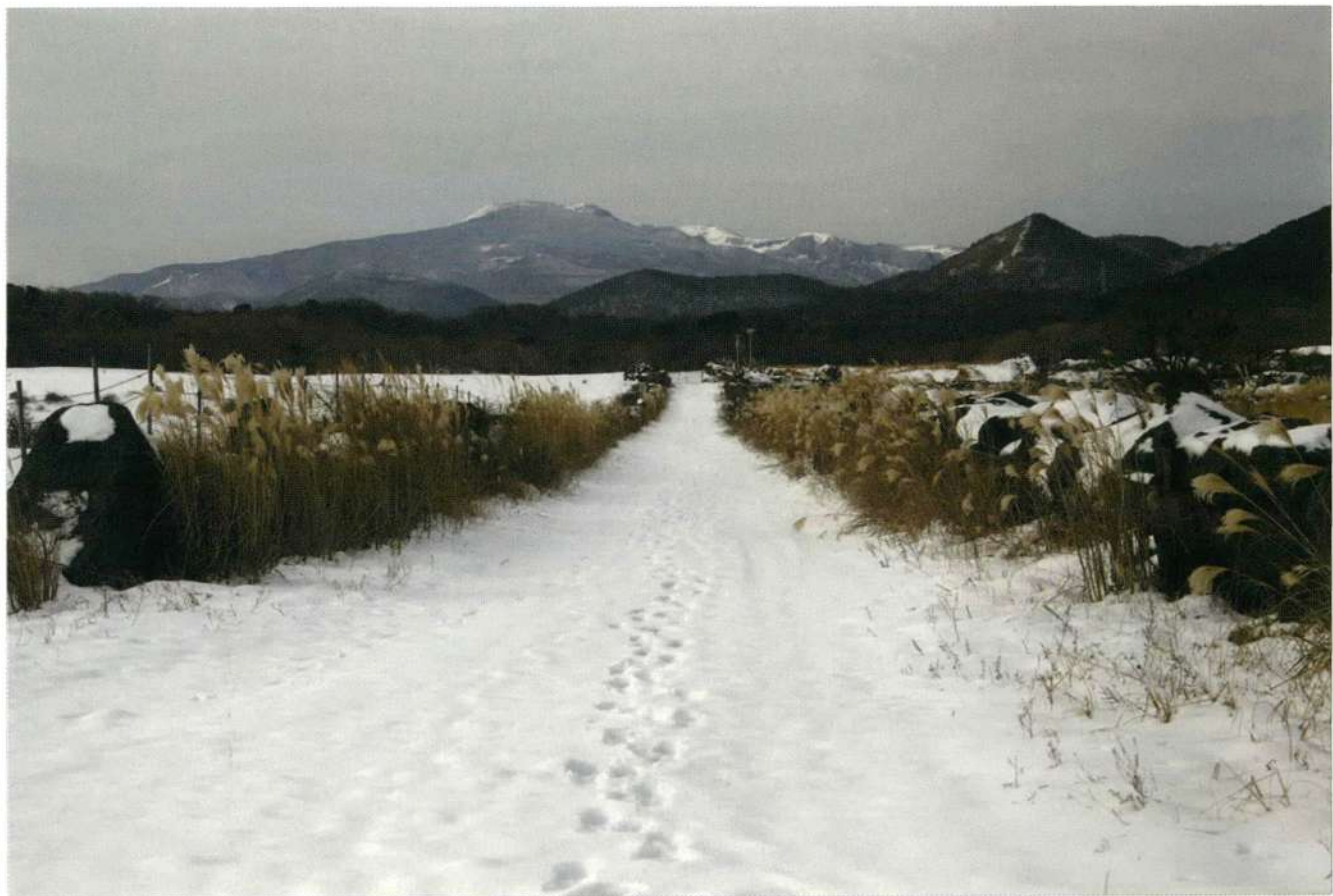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상상을 초월하는 화산석에
넋을 잃고 갑니다.

2011. 3. 25.
KBS사장 김인규

큰 감명 받았습니다.
개인의 집념, 국가의 지원
우리 모두 제주를 사랑합니다.

2012. 6. 1.
국방대 안보과정 12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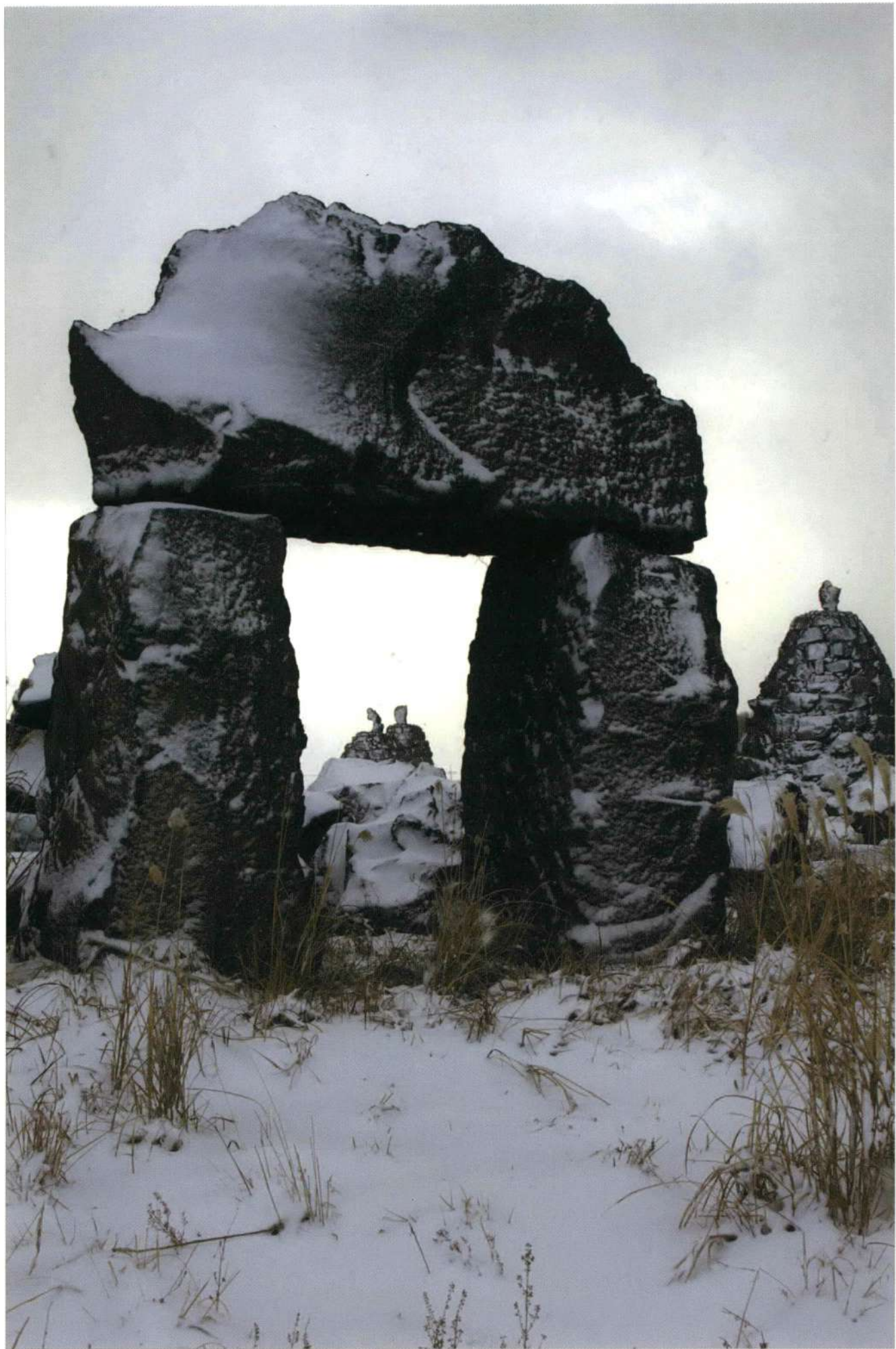
목장도로와 한라산

제주돌문화공원이
지구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5. 3. 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태섭

어이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 그 무엇의 뒤입니다.

2011. 7. 28.
시인 고 은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석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2012. 10. 12. 제주대학교 교수 하진희

우주혼(宇宙魂)을 담은 제주도.
제주도 혼(魂)을 오롯이 담은 제주돌문화공원!!!

그 이름은 이제 또 다시
우주혼 · 진리정신을 담고 문화로 승화되어
세계인의 새로운 우주적 진리적 혼(魂)을 일깨워
인류문명의 찬란한 빛이 될 것입니다.

2012. 11. 27. 김상호 합장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탑

제주, 돌, 풍경의 ...
 놀라운 풍경과 놀라운 기획력에
 푹 빠졌다가 갑니다.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

2012. 11. 5. 설치미술가 전종철

자연은 신비의 조화, 영원한 세계의 보물이어라.

2010. 11. 27. 원불교 제주교구장 김인경



돌문화공원 신화의 정원에 세워진 오백장군 상징탑

세계적인 문화유산 “제주돌문화”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2008. 5. 11. 정례덕 (경기도 수원시)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도의 보물이며,
세계문화의 큰 유산입니다.

2008. 초가을.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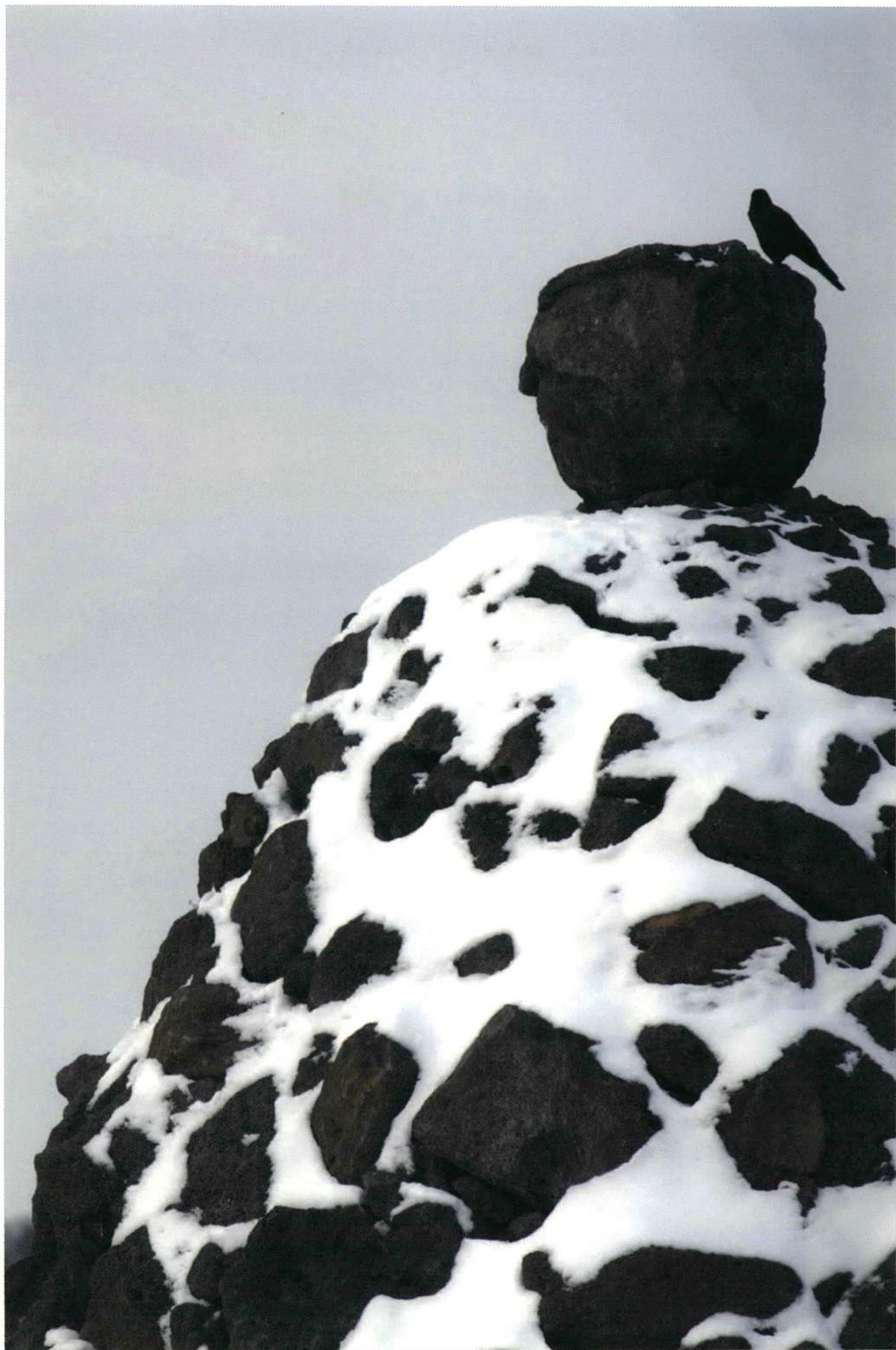
80 설문대할망 제단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설문대할망의 기운이 내재돼 있는
돌문화공원입니다.

신성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공간으로 가꾸어 가시는
돌문화공원에 설문대할망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강화도에서 온 마고할머니순례단의 일원

2013. 8. 10. 담수 김영애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 혁명

놀랍고, 환상적이고, 근사합니다.
제주에서 많이 배웁니다. 자연의 언어.

2011. 9. 24.
주한 레바논 대사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 터져버린 분노

이것은 환상적인 개념입니다.
멋지게 해내셨군요.

2011. 9. 24.
주한 남아프리카 대사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 백조의 호수

나무가 살고 돌이 살고 쇠가 살아 있네.
물건을 살려내는
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 남깁니다.

2003. 2. 28.
불교여성개발원 김남선

제주 돌에 생명을 주고
제주 나무의 순박함을 살려내는
제주돌문화공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04. 12. 25.
산림청 구연본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 천년의 잔해

귀중한 문화유산이
영원히 보존되어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05. 2. 18.
서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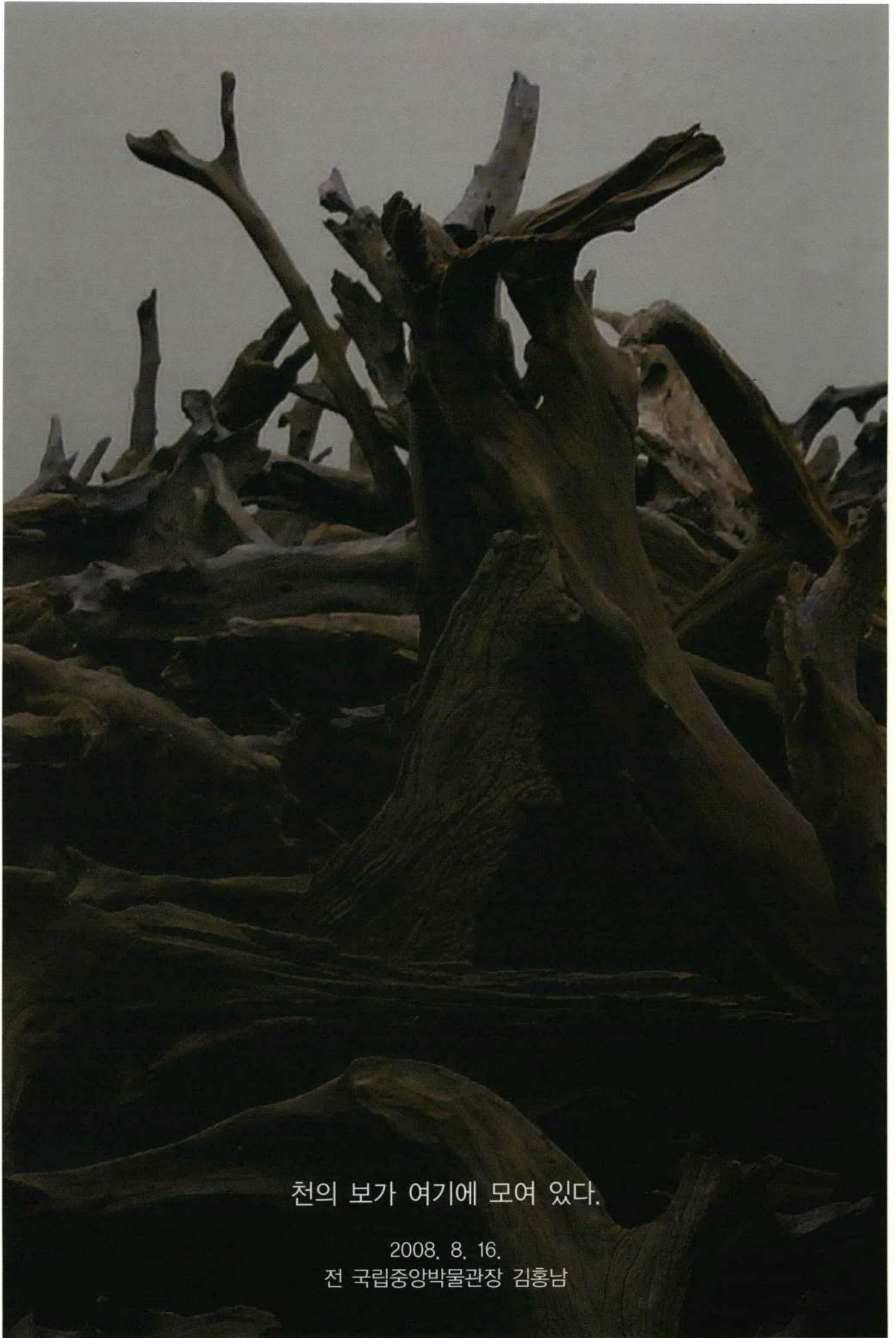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 정중동

정말 놀랍네요.
그 수집 !
그 창조 !
그 열정과 사랑 !

2008. 6. 27.
한국델픽위원회위원장 이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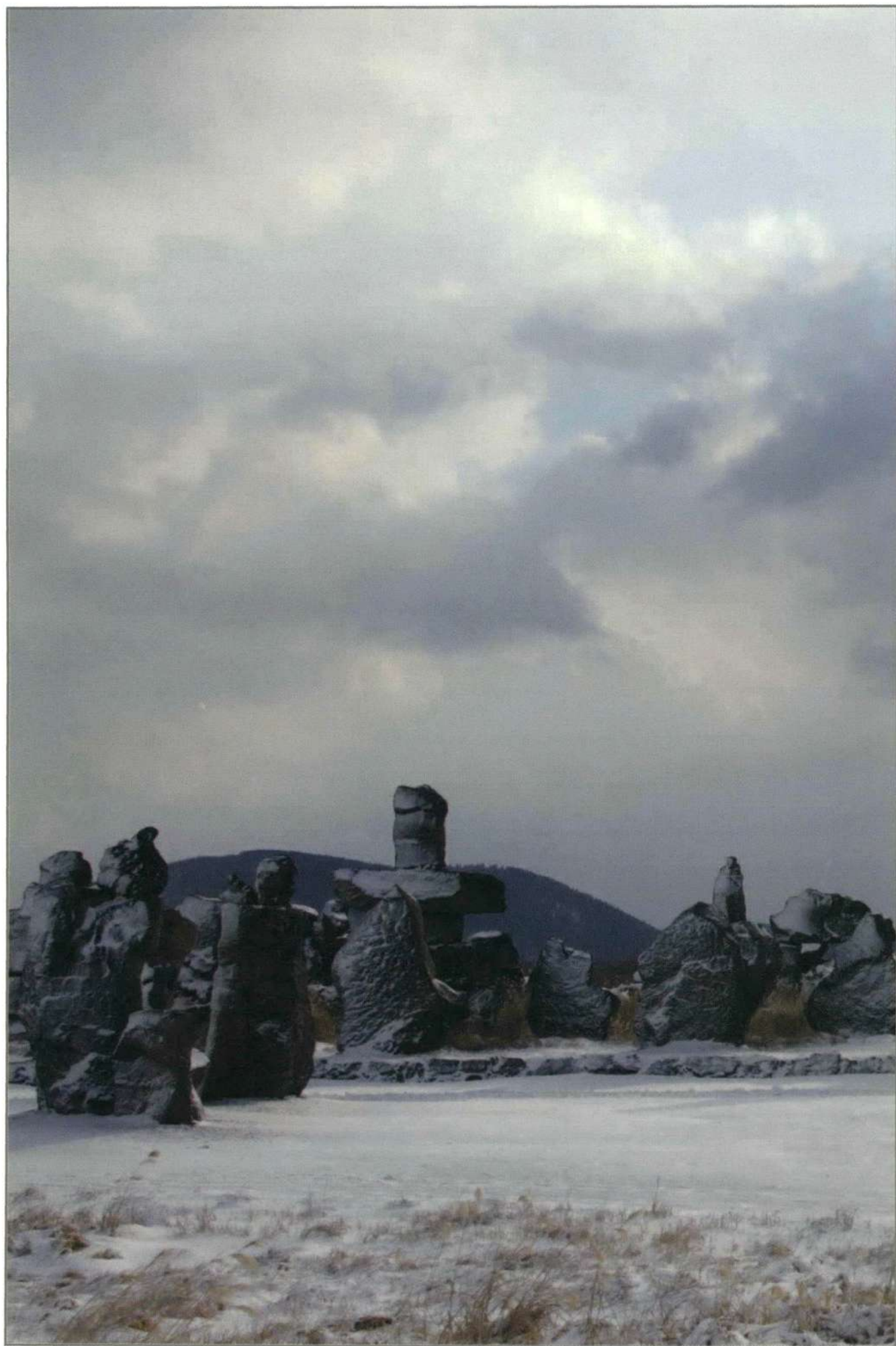
우리들이 태어난 아름다운 지구별의 예술품들을
이렇게 장엄하게 모아주신 큰 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5. 31. 재불화가 방혜자



천의 보가 여기에 모여 있다.

2008. 8. 16.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김홍남



교래자연휴양림
Gyoraee Natural Recreation Forest

예술인문화창작공간, 전원숙박시설단지 (기획예정지)
Cultural creation space for artists, Accommodation facilities (Planned)

큰 지그리 오름 등산코스
Keunjigri Oreum hiking trail

늪서리오름
Neupseori Oreum

설문대할망전시관 (2단계)
Seolmundae Halmang Complex (Second Phase)

작은 지그리 오름 등산코스
Jagun Jigri Oreum hiking trail

오백장군갤러리
The Obaek Jang-Goon Gallery

오백장군 상징탑
Symbolic tower of
the Obaek Jang-Goon

제주전통초가마을
Jeju traditional village
with thatched-roof houses

제주돌문화전시관
Jeju Stone Cultural
Exhibition Hall

주차장
Parking lot

신화의 정원
The Garden of Myth

제주돌박물관
Jeju Stone Museum

제주돌문화공원 시설 배치 계획도 (3,269,731m²)
Diagram of Jeju Stone Park facilities (The total space is 3,269,731m²)



제주의 보물, 세계의 자산이어라!

2001. 9. 19.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양성창

세계문화유산 제주도
제주도문화유산 돌문화공원 ...

2013. 김경렬 화백

국가적 문화사업, 세계적 문화사업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5. 2. 18. 안동대학교 서균석

제주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 6. 18. 경기대학교 한범수 (관광개발 아카데미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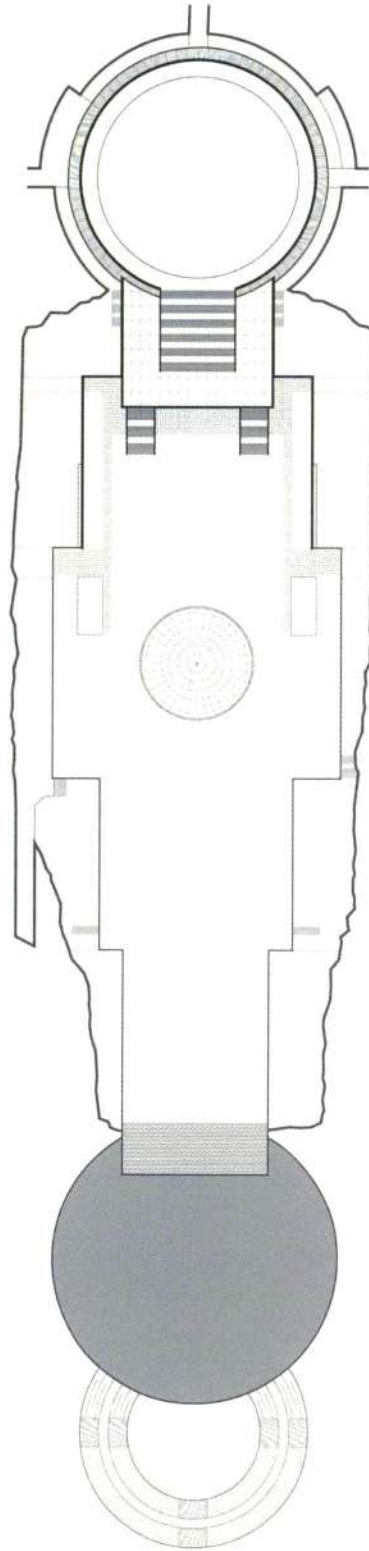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2005. 6. 19. 하와이에서 온 이덕희
(도시계획·환경계획전문가, 이민사연구가,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세계적인 돌문화공원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방대한 공간이 배치한 아름다운 거석들!
기획자의 상상력은 과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겠습니다.

2012. 11. 28. 지구촌의 나그네 청현스님

설문대할망전시관 기본계획



지붕층 평면도



큰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1. 송광사 불일암 법정 합장

정말 놀랍습니다. 한분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이런 놀라운 제주의 미래를 보전할 일 하셨군요!

2010. 10. 3. 제주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설문대할망을 만나러 왔다.
설문대할망을 들고 다니기에 벅차 한 권의 책으로 묶고 들고 왔다.

돌문화공원의 바른 모습을
설문대할망전시관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

2012. 11. 10. 시인, 소설가 이성준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설문대할망의 재발견은,
'설문대할망'을 상징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재구성이며,
그것에서 미래로 이어질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탐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국문학연구 제19호 정진희(서울대) 논문에서

자라나는 전설, 설문대할망의 경우

전설은 오히려 '다시쓰기'를 거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현대인의 심혼을 되살리는 삶의 효소가 된다는 것이다.

(사)이에도연구회의 2011년도 과제사업 논문 중에서 - 송상일(문학평론가)

설문대할망제 세계화 방안과 스토리텔링

설문대 설화는 전설과 민담의 재편과 변이가 이루어졌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창세신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라와 탐라 형성의 어머니라는 특성은
다양한 화소의 매력적인 유전자로 인해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어냈다.

스토리텔러와 신화 장소성의 이미지화가 상생된 신화박물관인 셈이다.
세계신화축제로 진전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2011, "설문대할망 신화와 설문대할망제" 세미나 이창식(세명대 교수) 주제 발표에서

퍼포먼스로 본 문화공간의 의미화 과정 - 제주돌문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12. 8. 22. 전북대학교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이경진 석사학위논문에서

(중략) J 한옥마을은 이전의 경관과 전혀 다른 화강암 돌길, 휘황찬란한 점포, 시설의 불빛과 같은 '낮선' 경관요소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더욱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J 한옥마을에서 받은 장소상실감은 연구자가 오랜만에 간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느낀 낯설음과 비슷하다.

(중략)

그렇다면 지역의 문화와 삶이 결합되어 진정한 장소성을 지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연구자는 그 방법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제주돌문화공원(Jeju Stone Park)'의 사례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박물관이자 테마공원이다. 약 3,269,731㎡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 위에 총 1,852억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이 테마공원은 '탐라 목석원'의 원장이었던 백운철(1944년생)이 평생 수집한 돌 관련 유물 수 만 점을 기증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돌문화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문화공간이 조성되는 과정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공간을 제주도의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를 주제로 하여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설화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 두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공간에 적용하여 장소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 만드는 문화공간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건물을 먼저 짓고 내용을 채우기 급급한 게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예는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약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두 단계로 나뉘어 장기적으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도 역시 드물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테마파크 등 문화공간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긴 공기(工期)를 들여 단계별로 조성하는 예는 보기가 힘들다. (중략)

21世纪济州文化的象征

——济州石文化公园



防邪塔和五百将军画廊 图片提供：王艳

作者：王艳
lianguan@jejuchina.net

“想夫处，江悠悠。化为石，不回头。山头日日风复雨，行人归来石应语。”望夫石的故事对于中国人来说是耳熟能详的。在济州岛也流传着一个五百将军化为石头的神话传说：汉拿山西南麓有一个叫“灵室”的地方。奇岩峭壁，高耸云天。这些岩石被人们称为“五百罗汉”或“五百将军”。

“五百将军”是创造济州岛的女巨人——雪门台婆婆的儿子。有一年，恰逢饥饉之年，民不聊生，“五百将军”出门寻找粮食，雪门台婆婆独自在家煮粥等儿子们归来。不幸的是，她一失足跌落进粥锅里，被无情的沸水吞没了。不知情的儿子们归来后，从锅里舀起粥便喝，觉得今天的粥异常美味。直到最小的儿子回来，在已被兄长们吃光的粥锅里发现了一根骨头，才意识到自己的母亲已经不在人世了。他埋怨兄长们只顾填饱肚子，毫不关心母亲的下落。盛怒交织着悲痛，小儿子哭喊着跑到咸镜面高山里的遮归岛化成了岩石。他的兄长们也悔恨交加，每日每夜思念着母亲，当最后一滴泪滑过脸颊，他们也都和弟弟一样化作了汉拿山的不朽岩石。后人因循这昔日凄凉的传说，耗资1852亿，在朝天邑的桥来里修建了一座占地近三百三十万平方米的石文化公园，来纪念这位伟大的母亲和五百个孝顺的儿子。

济州石文化公园共设四个展区，分别是济州石博物馆、济州石文化展示馆、露天展示区和济州传统草屋区。四个展区各具特色，用济州特有的玄武岩，从不同的角度诉说着独具特色的济州文化，将古老的神话和

传统民俗以及济州人的生活惟妙惟肖地再现于世人眼前。这里浓缩了济州岛上千年的历史，将自然与文化完美地结合在一起，可以说是21世纪济州文化的象征。

在济州石文化展示馆您可以通过那些雕刻得活灵活现的石头，了解到济州岛特有的民间信仰。有“一万八千尊神的故乡”之称。绝海孤岛，火山灰形成的贫瘠土壤，“燥飮所钟，海毒所蒸，无论冬夏，不风则必雨”等恶劣的自然与气候条件，使得科技并不发达的农耕社会中的济州人，尤其需要借助各路神灵来庇佑他们风调雨顺，五谷丰登，天下太平，因此形成了济州人生活信仰的多样化。而其中对于石头的信仰则独具特色。那用一块块石头垒成的防邪塔，将所有的凶险邪恶阻挡，除邪驱祟，慰藉心灵，为人们带来幸运与安康。

您对于济州岛无处不在的石头老爷爷和石头老奶奶一定并不陌生吧？他们既是济州岛的守护神，更是生殖崇拜的象征。济州人相信多尔哈鲁邦（石头老爷爷、石头老奶奶）能保护村庄，保佑人畜平安，不生病灾。最为重要的一点，多尔哈鲁邦还担当了生育神的职能，那些婚后不育或子孙稀少的人家都祭拜多尔哈鲁邦，祈求多尔哈鲁邦保佑他们生育儿女。在石文化公园的露天展示区便展示着最为灵验的金宁西门哈鲁邦。

在济州人的心目中，石头是神的化身。人们崇拜它，信仰它，因此将希望与祈愿赋予了它。漫步济州石文化公园，您会觉得那些石头不再是冷冷的没有生命的存在，每一块石头，每一棵花草树木，都沾染了神的灵性，仿佛在诉说着从远古走来的那一个个并未消亡的神话。

21세기 제주문화적 상징

－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다.

발행·제작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총괄기획 : 백운철

디자인·설치·편집·사진 : 총괄기획팀

안 사 말 : 이병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제작진행 : 김성언 (운영지원과장), 강봉군 (관리담당), 엄기일 (학예연구사)

인쇄·출판 : 제주미디어(주) 대표 이경화, 070-4270-5670

발행일 : 2013. 9.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T.064-710-7731 / F 064-710-7739

www.JEJUSTONEPARK.com